

## CONTENTS

1. Issue Report
2. 국내펀드 동향
3. 해외펀드 동향
4. 현금유출입 동향
5. 변액보험

### <Focus>

**당신의 변액보험... 안녕하십니까?**

### <국내펀드>

**증시상승 흐름타고 주식펀드 2개월째 UP**

### <해외펀드>

**글로벌 증시 상승, 중국펀드 나홀로 급락**

### <현금유입>

**MMF에서 큰 폭 자금 이탈...주식펀드 환매도 지속**

### <변액보험>

**기업실적 개선으로 일반주식 3.43% 상승**

이 보고서는 펀드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특정 운용사나 펀드를 권고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보고서의 내용에 의존해 행해진 누구의 어떠한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도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될 수 없습니다. [저작권]

2009년 8월 이슈리포트

**당신의 변액보험... 안녕하십니까?**

**인플레이션 헷지위해  
변액보험펀드 출시**

올 변액보험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네덜란드, 영국, 캐나다, 미국, 일본 등 여러 선진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실적배당형의 생명보험상품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각국은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문제로 대두되면서 장기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에서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변액보험 상품이 출시되기 시작했다.

**변액보험펀드 순자산액  
44조원**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보험가격자유화, IMF 이후 금융시장 재편 및 급격한 금리변동 등의 금융환경변화에 대응해 시장수익률을 반영하면서 인플레이션을 헷지해 보험금의 실질가치를 보장할 수 있는 변액보험 상품의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이후 2001년 변액종신보험이 최초 도입됐고, 2002년에 변액연금, 2003년에 변액유니버설보험이 뒤를 이어 판매됐다. 도입 초기에는 상품내용이 판매자와 고객에게 익숙하지 않았던 점 등으로 판매가 부진했지만 이후 주식시장의 성장을 기반으로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 8월26일을 기준으로 변액보험 특별계정 순자산액은 44조원에 달하고 있다.

**설명서상 운용계획과  
협회공시 유형 달라**

보험은 투자기간이 길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장을 받기 전에는 그 효과를 미리 알지를 못한다. 특히 변액보험은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이 일반보험계정처럼 일정금액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향후 보장액을 알기가 더욱 어렵다.

이에 생명보험협회에서는 변액보험상품을 따로 구분해 변액보험 특별계정(이하 변액보험펀드)의 수익률 및 자산내용을 공시 해 투자자들에게 변액보험 상품을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로인에서 확인한 결과 변액보험 펀드들의 유형이 협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과 다른 펀드들이 있어 단순 비교가 어려웠다. 이에 변액보험 상품설명서를 바탕으로 제로인 유형분류기준에 맞게 재조정된 뒤 자산운용사의 일반펀드들과 성과, 위험 지표,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비교해봤다.

**1. 변액보험의 특징**

**변액보험, 투자실적  
따라 보험금 변동**

변액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보험으로서의 기능과 함께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투자실적에 따라 변동하는 것이다.

즉, 변액보험은 자산운용회사의 수익증권 또는 유추얼펀드와 유사한 자산 운용구조를 갖고 있어 투자실적이 좋을 경우에는 사망보험금과 환급금이 증가하나, 투자실적이 악화될 경우에는 환급금이 원금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는 전형적인 투자형 상품인 것이다. 따라서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자산운용회사 상품처럼 전적으로 계약자가 부담하는 '자기책임의 원칙'이 적용된다.

단, 보험고유의 기능인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사망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이 최저보증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경우 보증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이 경우 가입한 펀드의 실적이 악화되더라도 가입시 설정한 최저 사망보험금(기본보험금)은 보장된다. 하지만 이 역시 원금보장은 아니다.

■ 변액보험과 일반펀드 비교

구분	변액보험	일반펀드
가입목적	- 장기 인플레이션 헷지를 통해 보험금의 실질가치 보장	- 간접투자를 통한 고수익 추구
운영형태	- 보험료 중 사업비 및 위험보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여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보험금 지급	- 투자금액 대부분을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여 투자수익을 투자자에게 지급
투자자 지위	- 계약자 권리 보유	- 수익자 또는 주주의 권리 보유
부가비용	- 사업비, 자산운용보수, 수탁보수 등	- 판매보수, 자산운용보수, 수탁보수 등
세제혜택	- 10년이상 유지시 보험차액 비과세	

■ 특별계정(펀드)와 일반계정 비교

구분	특별계정	일반계정
위험부담	계약자부담	보험사부담
최저보증이율	없음	있음
자산운용목적	수익성위주	안정성위주
자산평가시기	매일	매월
결산시기	매일	매년

2. 변액보험 펀드의 운용유형

변액보험이란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를 모아 펀드를 구성한 후 주식, 채권 등과 같은 유가증권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분배해 주는 실적배당형 보험을 말한다. 이에 변액보험은 자산운용에 있어 일반보험과 구별하기 위해 자산을 별도의 특별계정(펀드)으로 운용하고 있다.

변액보험 펀드 역시 일반 자산운용사에서 운용중인 펀드(이하 일반펀드)와 같이 주식편입비율에 따라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등의 형태로 구분된다. 이에 생명보험협회에서는 변액보험 펀드를 자산운용협회의 펀드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공시하고 있다

■ 위험자산에 따른 펀드 비교

구분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혼합형 펀드
운용대상	- 주식에 주로 투자 - 일부 채권, 유동성 투자	- 채권에 주로 투자 - 주식에 투자 안함	- 주식과 채권을 혼용하여 투자
장점	- 수익성 추구 - 주식시장 활황시 고수익 획득가능	- 장기 안정적인 수익확보 및 원금보전 가능성 높음 - 주식에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률 등락이 적음	- 안정성과 수익성 동시 추구 가능
단점	- 주식시장 폭락시 원금손실 발생	- 저금리 시대에 고수익을 기대하기 곤란	- 주식시장 폭락시 수익기대하기 곤란
운용적기	- 주식시장 활황기	- 고금리 안정화기	- 시장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채권형 펀드, 투자수익  
보다는 리스크 헷지용**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변액보험(변액종신,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설 등) 펀드들의 주요 특징을 생명보험협회 기준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채권형펀드는 크게 2종류 내외로 운용되고 있다. 정부 등에서 발행하는 국·공채 및 투자적격 우량 회사채 등에 주로 투자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채권형 펀드가 있고, 콜, CD, CP 등 단기 현금성 자산에 투자하는 단기채권형 펀드(또는 MMF펀드)가 있다. 단기채권형 펀드는 유동성 확보를 중시해 고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대신 단기현금성 자산 위주로 운용되기 때문에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은 거의 없는 펀드이다.

그래서 일부 회사에서는 채권형 펀드와 혼합형 펀드의 투자수익률이 (-)가 발생할 경우 이 펀드로 변경해 리스크를 헷지할 수 있도록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단기채권형 펀드는 엄밀한 의미에서 투자수익이 목표라기 보다는 리스크 헷지용 펀드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주식형 펀드, 주식투자  
비중과 운용스타일따라  
분류 가능**

둘째, 주식형 펀드, 혼합형 펀드는 주식편입비율에 따라서 구분된다. 상대적으로 펀드수가 많은 혼합형 펀드는 주식투자 한도를 '00%이하'로 정의된 변액보험펀드를 지칭한다. 만일 주식에 100%이하 투자하는 변액보험펀드는 협회기준으로 혼합형에 해당한다. 주식형은 자산운용협회와 마찬가지로 60%이상 자산을 주식에 투자하는 종류를 가리킨다. 다만 제로인은 협회유형 정의와 달리 주식투자 상한이 80~100%인 변액보험도 주식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투자지역에 따라 국내와 해외로 구분된다.

**변액보험펀드 대부분  
채권혼합형**

이와 같은 기준으로 2009년 8월26일 현재 생명보험협회에서 공시하고 있는 705개 변액보험펀드의 유형을 조사한 결과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고 있는 주식형펀드는 103개이고, 채권에 60%이상 투자하는 채권형펀드는 127개로 나타났다. 또한 주식편입비중이 주식형보다 낮은 주식혼합형펀드와 채권혼합형펀드는 각각 81개, 239개로 조사됐다. 해외주식과 국내채권에 투자하고 있는 해외혼합형은 145개이고, MMF는 11개로 나타났다.

**생보험, 펀드유형구분  
기준안 모호**

그러나 실제 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확인한 결과, 협회에서 주식형으로 공시한 변액보험 펀드 중 25개는 국내주식이 아닌 해외주식펀드에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고, 해외혼합형 역시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펀드들이 섞여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동일 유형 내에서도 설명서상 주식투자 비중과 운용 전략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에 제로인에서는 제로인 펀드 유형분류기준에 따라 변액보험펀드를 재분류 후 국내변액보험 펀드들의 운용현황을 살펴봤다. 제로인 유형분류기준에 따라 국내주식에 자산의 3분의 2이상을 투자하는 국내주식형 변액보험펀드는 76개로 나타났고, 주식혼합형과 채권혼합형, 채권형은 각각 119개, 167개, 126개로 변액보험 상품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해외주식형과 해외주식혼합형은 각각 70개, 80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 제로인/생보험 분류기준별 변액보험펀드 수

생보험 제로인	주식형	주식 혼합형	채권 혼합형	채권형	MMF	해외 혼합형	계
주식형	67	9					76
주식혼합형	10	55	51			3	119
채권혼합형		7	157			3	167
채권형				121	5		126
MMF				1	6		7
절대수익추구형			10				10
기타	1	1	3	1		2	8
해외주식형	25	1				44	70
해외주식혼합형		8	3			69	80
해외채권혼합형			15			21	36
해외채권형				3		1	4
해외부동산형						2	2
<b>계</b>	<b>103</b>	<b>81</b>	<b>239</b>	<b>126</b>	<b>11</b>	<b>145</b>	<b>705</b>

주1) 2009년 8월 26일 생명보험협회에서 공시된 변액보험펀드를 대상으로 함

주2) 제로인 유형분류는 펀드별 설명서에서 제시한 운용전략을 기준으로 함

3. 변액보험 특별계정 관련 비용

변액보험은 납입보험료 전액을 펀드에 투입하여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납입한 보험료에서 미리 정해진 사업비 및 특약보험료를 제외한 금액만을 펀드에 투입한다. 또한 펀드 적립금에서는 운용보수 및 최저보증비용 등이 차감되는데 펀드에서 차감되는 제반 비용은 △특별계정 신탁보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 △위험보험료 △완납후 유지비 등이 있다.

■ 펀드에서 차감되는 제반비용

비용	비례액	공제일	비고
특별계정 신탁보수	적립금	매일	펀드별 차등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적립금	매일(매월)	펀드별 동일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	적립금	매일(매월)	펀드별 동일
위험보험료	가입금액	매월	펀드와 무관
완납후 유지비	가입금액 또는 보험료	완납후 매월	펀드와 무관

특별계정 관련비용  
신탁보수 외 4가지

신탁보수율, 주식형  
가장 높아

변액보험은 일반펀드와 달리 신탁보수에 판매관련 비용이 없다. 따라서 신탁보수 중 운용사에게 지급되는 운용보수율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 신탁보수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0.77%(운용보수 0.74%, 수탁보수 0.04%)인 국내주식형으로 조사됐다.

변액보험펀드 중 국내주식형의 보수율을 보험사별로 살펴본 결과 뉴욕생명 보험이 평균 1.15%(운용보수 1.1%, 수탁보수 0.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PCA생명의 평균 보수율은 0.35%(운용보수 0.3%, 수탁보수 0.05%)로 가장 낮았다.

■ 변액보험펀드 유형별 보수율

유형	신탁보수	운용보수	수탁보수
주식형	0.77	0.74	0.04
해외부동산형	0.77	0.70	0.07
해외주식형	0.73	0.66	0.07
해외주식혼합형	0.69	0.65	0.04
주식혼합형	0.69	0.65	0.04
채권혼합형	0.66	0.62	0.04
절대수익추구형	0.58	0.54	0.03
해외채권혼합형	0.57	0.53	0.04
해외채권형	0.49	0.42	0.07
채권형	0.44	0.40	0.04
MMF	0.33	0.29	0.04

주1) 제로인 유형분류기준에 따라 대상펀드 보수 단순평균

주2) 신탁보수 순으로 정렬

■ 주식형 변액보험펀드 운용사별 보수율

운용사	신탁보수	운용보수	수탁보수
뉴욕	1.15	1.10	0.05
대한	1.00	0.95	0.05
카디프	1.00	0.95	0.06
알리안츠	1.00	0.96	0.04
삼성	0.90	0.89	0.01
AIG	0.86	0.80	0.05
라이나	0.83	0.78	0.05
동부	0.83	0.80	0.03
교보	0.82	0.80	0.02
동양	0.80	0.76	0.05
금호	0.80	0.78	0.02
메트라이프	0.78	0.74	0.04
KB	0.78	0.74	0.04
ING	0.77	0.74	0.03
푸르덴셜	0.77	0.75	0.02
하나HSBC	0.73	0.68	0.05
녹십자	0.72	0.70	0.02
흥국	0.72	0.69	0.03
신한	0.70	0.66	0.04
미래에셋	0.42	0.39	0.03
PCA	0.35	0.30	0.05

주1) 운용사별 주식형펀드 보수를 단순평균

주2) 신탁보수 순으로 정렬

4. 변액보험펀드 현황

1) 유형별 운용 규모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2009년 8월26일 현재 705개 변액보험 특별계정 순자산액은 44조 5777억원에 이르고 있다.

2007년 증시활황 속에서 특별계정 순자산액은 70%에 달하는 성장세를 보였고, 2008년에는 증시하락에 상승폭은 둔화됐지만 꾸준한 자금유입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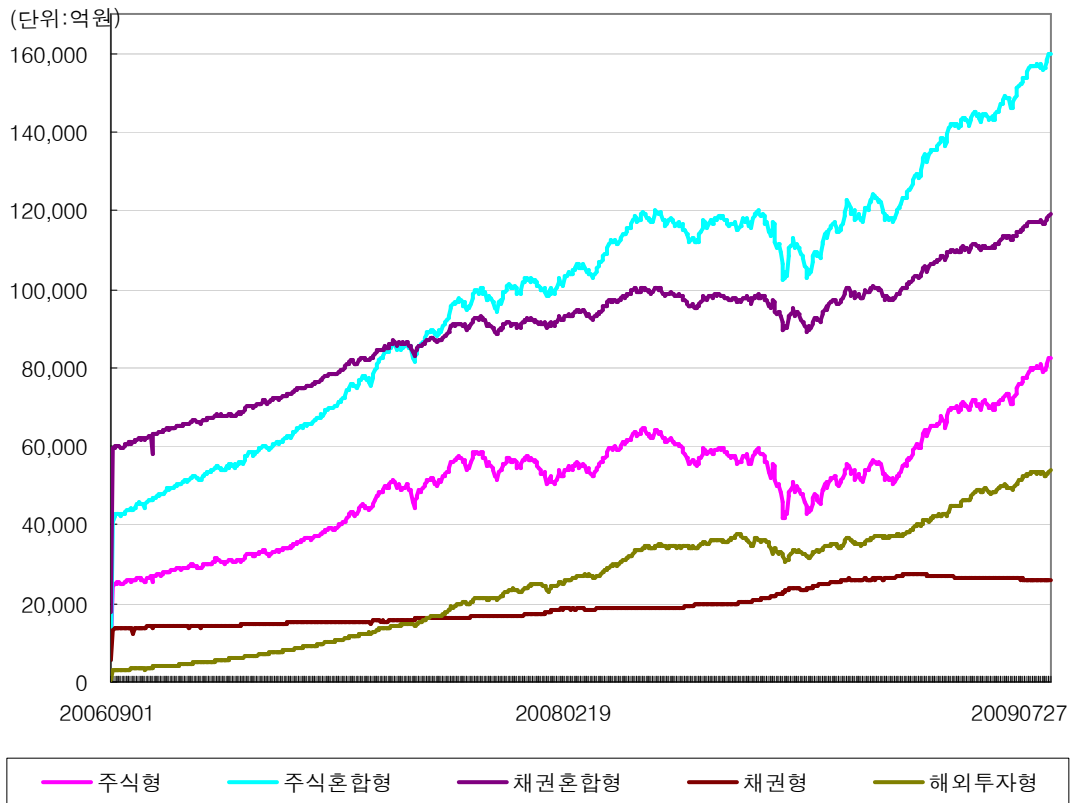
**변액보험펀드 순자산액  
44조 5777억원**

**주식혼합형,  
변액보험펀드 중 비중  
가장 커**

11%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2009년 들어서는 8월 26일까지 특별계정 순자산액이 35% 상승했다.

제로인 유형분류 기준으로 각 유형별 순자산액을 살펴보면 주식혼합형과 채권혼합형의 순자산액은 각각 16조 73억원, 11조 9958억원으로 변액보험내에서 36%, 2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주식혼합형의 경우 2007년 증시 상승 속에서 순자산액이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설정초기 채권혼합형의 비중이 가장 컸던 변액보험 시장에서 2007년 8월을 기점으로 주식혼합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유형별 순자산액 변화**



**변액보험펀드 성과  
일반펀드비해 부진**

**2) 유형별 수익률**

제로인 유형분류기준으로 최근 3개월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일반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주식펀드의 경우 12.89%로 같은 기간 코스피200보다 4.17%포인트 저조한 성과를 기록했다. 최근 6개월 성과 역시 벤치마크보다 7.24%포인트 낮은 43.21%를 나타냈다. 이 같은 결과는 주식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변액보험 펀드 특성 때문이다.

1년 이상 수익률에서는 벤치마크와 비교했을 때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성과는 벤치마크를 10%포인트 앞서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자산운용사의 주식펀드와 비교했을 때는 4.29%포인트 뒤지는 성과다.

■ 변액보험펀드 기간수익률

(기준일:2009.08.26)

유형	변액보험				일반펀드			
	3개월	6개월	1년	3년	3개월	6개월	1년	3년
주식형	12.89	43.21	11.29	31.74	13.40	51.63	12.85	36.04
주식혼합형	7.52	24.01	10.92	25.21	6.93	26.22	11.42	29.45
채권혼합형	4.46	14.63	9.74	20.26	3.85	14.84	9.34	21.29
채권형	-0.02	1.59	7.05	14.26	0.13	2.36	8.06	16.39
MMF	1.91	2.47	5.04	14.29	0.56	1.19	3.69	13.85
절대수익추구형	1.20	5.63	7.93	16.31	1.03	4.78	6.64	18.32
해외주식형	12.02	34.20	-7.03	5.40	14.39	45.55	-10.83	6.29
해외주식혼합형	7.54	19.78	3.60	17.48	16.55	52.15	-0.19	-5.88
해외채권혼합형	4.57	11.88	5.01	16.64	5.06	14.32	0.71	9.79
해외채권형	3.82	5.93	9.45	16.42	6.71	16.12	0.46	10.68
해외부동산형	10.78	13.57	-3.35	2.17	9.82	14.50	-18.89	-29.59

주1) 변액보험은 해당펀드 수익률을 단순평균 함

주2) 일반펀드는 해당펀드 수익률을 순자산액 기준으로 가중평균 함

연도별로 변액보험펀드의 성과를 살펴본 결과 자산운용사의 펀드성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세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인 반면 강세장에서의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원인은 앞서 말한대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일반펀드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 연도별 수익률

유형	변액보험				일반펀드			
	06년	07년	08년	연초후	06년	07년	08년	연초후
주식형	4.28	33.23	-34.55	38.00	1.56	40.28	-38.48	45.14
주식혼합형	11.56	19.57	-18.14	21.57	3.01	21.43	-18.83	23.73
채권혼합형	3.59	12.26	-8.54	13.29	5.99	15.86	-8.62	13.92
채권형	4.26	2.72	8.22	1.73	4.82	3.41	8.40	2.69
MMF	3.80	4.18	5.10	2.98	4.77	4.69	8.61	1.77
절대수익추구형	3.86	5.97	2.86	4.72	3.85	7.09	2.79	5.47
해외주식형	12.12	18.07	-37.75	31.20	31.44	30.38	-52.99	42.46
해외주식혼합형	10.27	16.52	-21.58	19.72	10.86	15.92	-48.30	45.11
해외채권혼합형	5.22	12.36	-11.88	11.78	8.47	9.17	-11.21	13.78
해외채권형	-2.51	1.44	7.12	7.02	5.75	2.94	-8.70	13.40
해외부동산형		1.81	-18.43	8.99	28.59	-9.67	-35.45	3.87

주1) 변액보험은 해당펀드 수익률을 단순평균 함

주2) 일반펀드는 해당펀드 수익률을 순자산액 기준으로 가중평균 함

주3) 연초후 수익률은 2009년 초~ 2009년 8월26일까지 성과임

변액보험펀드, 변동성  
작아

중간위험 중간수익  
추구

3) 수익률 변동성 : 위험도

변액보험펀드의 위험정도를 살펴본 결과 대체로 시장에 비해 안정적인 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식형 펀드의 최근 1년간의 수익률 변동성은 일반펀드에 비해 6.29%포인트 낮은 33.62%를 나타냈다. 이는 일반펀드 중에서 상위 4%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일반펀드에 비해 변액보험펀드의 변동성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변액보험의 경우 장기 상품으로서 인플레이션에 따른 보험금의 실질가치 하락 방지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에 주력한 것이다. 이에 고수익을 위한 공격적 운용에 주력하는 자산운용회사의 펀드들에 비해 중간정도 위험에 중간정도의 수익을 추구하고 있다.



다만, 혼합형은 일반펀드와 거의 유사하고 시장중립형 등 절대수익추구형의 수익률 변동성은 일반펀드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 변액보험펀드 표준편차 (기준일:2009.08.22)

유형	변액보험			일반펀드		
	6개월	1년	3년	6개월	1년	3년
주식형	13.39	33.62	24.60	14.56	39.91	29.62
주식혼합형	7.27	18.90	14.15	8.04	20.09	14.78
채권혼합형	4.26	10.75	8.27	4.48	11.27	8.30
채권형	2.04	2.72	1.86	2.27	3.57	2.30
MMF	2.13	1.51	0.87	0.04	0.19	0.14
절대수익추구형	2.53	4.89	3.63	1.90	3.42	2.47
해외주식형	16.91	26.98	18.18	22.73	39.96	29.20
해외주식혼합형	8.21	13.49	10.50	19.29	34.27	23.72
해외채권혼합형	4.34	7.13	6.21	5.95	9.98	7.24
해외채권형	5.07	7.73	6.11	5.82	10.14	6.47
해외부동산형	8.53	17.97	14.39	15.71	23.93	19.34

주1) 6개월과 3년간의 표준편차는 연환산함

4) 자산별 투자비중

유동성 비중 10% 이상

2009년 8월27일 포트폴리오를 기준으로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변액보험펀드들의 자산별 비중을 살펴봤다. 대부분이 10% 이상을 유동성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변액보험의 경우 해약을 등의 예측이 곤란해 이에 대비하기 위해 유동자산을 높은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변액보험펀드의 경우 장기적인 수익 추구를 원칙으로 하며 운용의 성과와 위험이 계약자에게 직접 귀속되기 때문에 안정성과 수익성에 모두 유의해 운용해야 한다. 이에 유동성 비중을 높게 유지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수익률 변동성이 일반펀드보다 작게 나타난 것도 이처럼 같은 유동성 비중이 높았기 때문이다.

■ 유형별 자산비중 (기준일:2009.08.27)

유형	주식	채권	수익증권	유동성	(주식비중 표준편차)
주식형	70.76	2.34	14.55	10.97	30.05
주식혼합형	39.93	28.81	16.22	12.34	19.60
채권혼합형	17.96	37.79	23.71	11.50	13.51
채권형		65.86	16.84	12.55	
MMF		22.67	38.81	36.50	
절대수익추구형	7.48	80.14		7.52	4.75

주1) 펀드별 자산비중을 단순평균 함

주2) 국내투자펀드만을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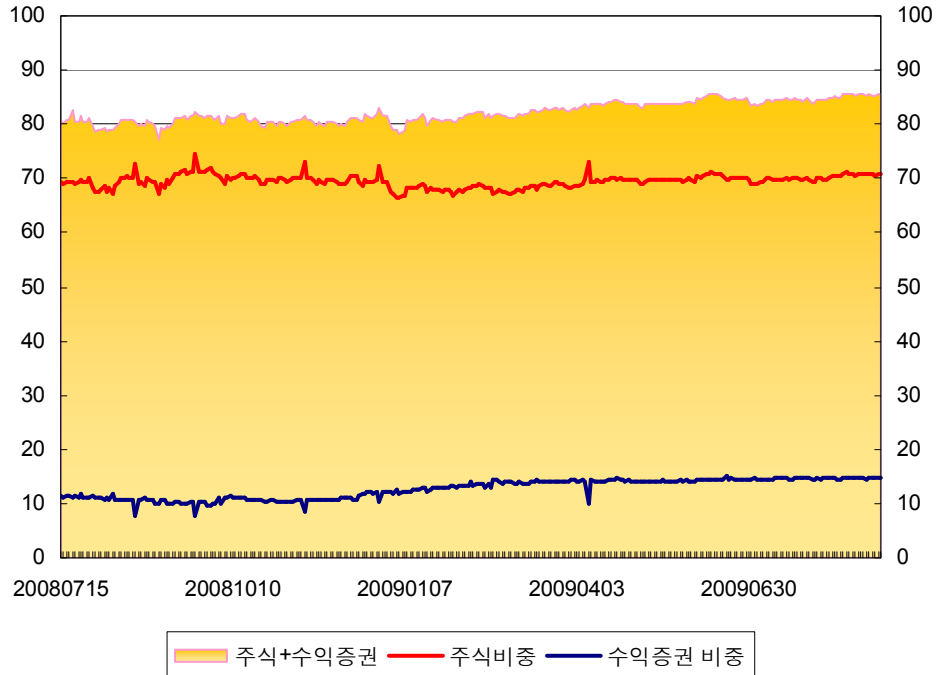
국내주식형  
주식투자비중 80%수준

2008년 10월 이후 변액보험펀드 중 국내주식형 펀드들의 보유자산별 비중을 살펴본 결과 평균 70% 수준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익증권에 10%이상 투자하고 있다. 수익증권의 경우 국내주식에 거의 대부분을 투자하고 있어 이 비중 역시 주식비중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변액보험 주식형펀드의 자산비중을 살펴볼 때 2009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80%수준을 보이던 주식편입비가 최근 들어 85%수준으로 올라섰다. 하지만 이 비중 역시 자산운용사의 일반주식펀드들이 글로벌 금융위로 주식투자 비중을 줄였던 때의 수준으로, 최근 92%를 보이고 있는

자산운용사의 일반주식펀드보다 7%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수익증권 역시 100% 모두 주식에 투자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차이는 7%포인트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 같은 비중의 증가는 실제 주식이 아닌 수익증권에 대한 비중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주식투자비중은 70%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수익증권은 10%에서 15%로 증가했다.

■ 주식편입비중변화



삼성생명 수익증권에 100% 투자

2009년 8월27일 현재 보험사별로 주식과 수익증권을 합친 비중을 살펴본 결과 삼성생명이 수익증권에 100% 투자하며 가장 높게 나타났고, 메트라이프는 주식에 87.63%, 수익증권에 3.77%투자해 총 91.40%를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양생명은 주식에만 71.0% 투자하며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수익증권 투자의 경우 보수 이중차감

변액보험펀드의 경우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채권 외에 주식관련 파생상품과 수익증권(펀드) 등 다양한 상품에의 투자가 가능하다. 이에 생명보험회사들 중 계열사에 자산운용회사를 포함하고 있는 회사들의 경우 계열운용사에서 운용중인 펀드에 투자비중이 높은 변액보험 상품들이 눈에 띄었다. 자산운용에 전문성과 재간접펀드와 같이 위험분산을 위해 이와 같이 변액보험펀드를 관리하는 것이다.

삼성생명의 경우 변액보험펀드의 100%를 계열운용사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고, PCA생명은 70.70%, 미래에셋생명은 45.46%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이용할 경우 변액보험 펀드에서의 운용보수 외에 수익증권에서의 운용보수가 차감돼 이중으로 보수가 빠져나간다. 이에 일반펀드 중 재간접펀드의 경우 보수를 일반펀드에 비해 낮게 측정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생명의 경우 100%를 수익증권에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액보험펀드의 운용관리보수가 평균 0.9%로 타 보험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주식형펀드 보험사별 자산비중

보험사	펀드 수	주식	수익 증권	채권	유동성	(주식비중 표준편차)
삼성	3		100.00			0.00
메트라이프	14	87.63	3.77		7.92	11.26
PCA	4		90.70		7.95	0.00
하나HSBC	2	82.10	6.35		11.20	8.06
카디프	2	87.60			10.90	3.68
ING	4	85.48	1.28		12.65	9.30
AIG	5	81.94	4.64		11.28	8.12
라이나	3	86.37		5.20	7.17	4.41
대한	2	85.90			11.70	1.56
알리안츠	2	85.60			14.25	1.84
미래에셋	5	38.82	45.46	2.28	13.44	38.14
신한	6	76.73	7.37		15.48	16.03
교보	3	57.50	25.63		15.53	50.10
녹십자	2	80.95			17.95	5.87
KB	2	80.80		10.85	7.25	20.22
푸르덴셜	3	78.83	0.30		19.23	24.80
흥국	4	78.83		3.48	14.10	12.90
금호	1	78.20		19.50	0.70	0.00
뉴욕	4	76.98		13.50	7.43	10.75
동부	3	75.77		6.60	11.20	12.63
동양	2	71.00		11.10	15.60	22.06

주1) 펀드별 자산비중을 단순평균 함

5. 결론 : 펀드와 유사하면서도 다른 변액보험 펀드

변액보험은 자산운용의 실적과 위험을 계약자가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일반보험과 달리 특별계정(펀드)을 두어 각각의 자산을 분리해 운용하고 있다. 또한 개인별로 적립금의 산출에 있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펀드의 평가는 매일매일의 시가법에 의해 평가하고, 이를 공시하고 있다.

공시된 기준가격으로 각 유형별 수익률을 계산한 결과, 1년 이상의 성과에 있어서는 벤치마크를 상회하는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자산운용사에서 관리하는 펀드들과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위험이 작은 만큼 성과 역시 저조하게 나타났다.

이 같은 모습은 변액보험펀드와 자산운용사의 펀드들 간의 운용목적이 상이한대서 나타나는 자연스런 현상이다. 변액보험의 경우 투자자들이 계획하는 투자기간이 긴데다 기본 목적이 투자기간 동안 물가상승에 따른 보험금의 실질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자산운용사에서 추구하는 수익의 극대화가 아닌 인플레이션 헷지를 위한 것이다.

이에 시장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적극적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비중을 조절하는 자산운용사들의 펀드들과는 대조적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비중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2009년 8월26일 기준으로 변액보험펀드 중 설정액 50억원 이상으로 운용기간이 3년 이상인 265개 펀드 중 수익률이 가장 우수한 펀드로는 SH&C생명의 '카디프 VUL&VA 베스트주식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펀드는 국내주식에 대부분을 투자하며 최근 3년간 65.95%의 성과를 올렸다. PCA생명의 'PCA VUL 아시아주식형'은 아시아 신흥국지역에 투자하며 50.28%의 성과로 뒤를 이었다. 반면 -35.95% 수익률을 보인 SH&C생명의 '카디프 VUL&VA 유로메리카배당ETFs재간접형'을 비롯한 7개 펀드는 수익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펀드보다 위험이  
작은 만큼 수익률도  
낮아

운용목적 상의로  
위험자산 비중 낮아

**변액보험펀드,  
투자수익률 외에  
보험으로서의 기능도  
살펴 투자**

물론 투자수익률이 좋은 회사의 상품에 선호도가 집중될 수 밖에 없겠지만 변액보험상품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의 장기인 점을 감안할 때, 일시적인 투자성과에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같은 고수익이 호황기에 고위험자산에 집중 투자한 결과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자는 변액보험상품을 고르는데 있어 단기간 투자수익률에 현혹돼 성급한 결정을 하기 보다는 3년이상 장기성과와 함께 보험회사의 신뢰도와 각종 수수료, 사업비지수, 보장내용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변액보험의 경우 여러 유형의 펀드로 갈아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장상황에 맞게 펀드를 바꾸거나 유형별 비중을 조절해 주는 것도 투자자들의 장기성과를 높이는데 좋을 것이다.

**■ 3년간 수익률 상위 20**

(단위 : 억원, %)

펀드명	보험사	순자산액	유형	1년	3년
카디프 VUL&VA 베스트주식형	SH&C	4,212	일반주식	11.08	65.95
PCA VUL 아시아주식형	PCA	3,338	아시아신흥국주식	10.87	50.28
하나HSBC VUL 아태브릭스주식성장형	하나	138	글로벌주식혼합	10.70	50.10
미래에셋 VUL 주식성장형	미래에셋	1,223	일반주식	18.73	44.72
메트라이프 VA 가치주식형	메트라이프	1,175	일반주식	13.82	38.95
푸르덴셜 VA 해외혼합형	푸르덴셜	173	글로벌주식혼합	19.64	37.06
푸르덴셜 VUL종신 해외혼합형	푸르덴셜	160	글로벌주식혼합	16.43	36.68
AIG VUL(1형) 글로벌혼합형(재간접형)	AIG	106	글로벌주식	14.15	36.54
메트라이프 VUL종신 가치주식형	메트라이프	226	일반주식	13.79	36.47
미래에셋 VUL 인디아주식안정성장자산배분형	미래에셋	237	아시아신흥국주식혼합	11.01	35.34
AIG VUL(1형) 주식형	AIG	9,478	일반주식	12.20	35.26
미래에셋 VUL 주식혼합형	미래에셋	53	일반주식혼합	15.96	34.94
금호 VUL 혼합성장형	금호	855	일반주식	13.53	34.28
동부 VA 성장형	동부	804	일반주식	15.17	34.09
미래에셋 VUL 아시아태평양Q펀드자산배분형	미래에셋	540	아태주식혼합(ex J)	12.10	32.98
미래에셋 VUL 아시아태평양주식안정성장자산배분형	미래에셋	374	아태주식혼합(ex J)	11.49	32.97
신한 VA 안정성장형	신한	513	일반주식혼합	13.36	32.31
ING 파워VUL 배당주식혼합형	ING	572	일반주식혼합	9.50	32.19
동부 변액종신&변액CI종신 혼합형	동부	68	일반주식혼합	12.25	32.15
미래에셋 VUL종신&변액CI종신 아시아태평양주식안정	미래에셋	131	아태주식혼합(ex J)	11.06	31.28

**■ 3년간 수익률 하위 20**

펀드명	보험사	순자산액	유형	1년	3년
카디프 VUL&VA 유로메리카배당ETFs재간접형	SH&C	101	글로벌주식	-21.84	-35.95
교보 VUL 일본혼합형 II	교보	59	아태주식혼합(ex J)	-11.12	-18.57
삼성 VUL 일본혼합형	삼성	75	아태주식혼합(ex J)	-10.03	-18.43
교보 VUL 미국혼합형 II	교보	81	글로벌주식혼합	-9.59	-7.29
대한 VUL 글로벌혼합형	대한	124	글로벌주식혼합	-7.95	-5.83
카디프 VUL&VA 아시아태평양ETF재간접형	SH&C	450	아시아태평양주식	-10.14	-5.35
삼성 VUL 미국혼합형	삼성	105	글로벌주식혼합	-5.74	-3.36
동양 VUL&VA PaxAsia혼합형	동양	231	아태주식혼합(ex J)	-1.24	3.65
AIG VUL(1형) 글로벌이머징마켓주식형(재간접형)	AIG	869	신흥국주식	-13.44	4.90
PCA VUL&VA 해외성장형	PCA	330	글로벌주식	-4.76	6.44
PCA VUL&VA 라이프사이클2035	PCA	358	글로벌주식	-2.40	7.05
PCA VUL&VA 라이프사이클2025	PCA	139	글로벌주식	-1.39	7.24
라이나 VUL 혼합성장형	라이나	1,139	일반주식	3.07	10.36
ING VA 국공채형	ING	549	우량채권	6.08	10.54
뉴욕 VUL&VA 단기채권형	뉴욕	66	초단기채권	2.41	10.75
하나HSBC VA 채권형1	하나	112	일반채권	6.61	11.07
PCA VUL&VA MMF형	PCA	929	MMF	2.32	11.30
ING VUL 국공채형	ING	286	우량채권	6.56	11.45
PCA VUL&VA 라이프사이클2015	PCA	110	글로벌주식혼합	0.81	11.62
메트라이프 VA 채권형	메트라이프	498	일반채권	6.59	11.70

주1) 2009년 8월26일 기준 설정액 50억원 이상, 운용기간 3년 이상인 펀드를 대상으로 함

2009년 8월 주식시장 동향

**증시상승 흐름타고 주식펀드 2개월째 UP!**

주식시황

8월 주식시장 2개월  
연속 상승랠리

코스피지수는 2개월 연속 상승해 1,600선까지 올라섰다. 국내 경제성장이 전기대비 2.3%대를 기록하며 국내경제가 회복국면에 진입했음을 시사했고, 미국의 7월 비농업부분의 신규고용과 실업률 및 주택관련지표 등이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국내외 경제지표가 주식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면서 외국인인 매수세가 지속, 국내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 하락 등의 여파로 8월 마지막 외국인이 130억원의 순매도로 돌아서면서 증시의 발목을 잡았다. 미국 소비자신뢰지수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데다 중국 증시가 급락하면서 투자심리가 악화된데 기인한다. 이에 8월 코스피지수는 1,591.85로 마감하며 한 달간 2.22%의 상승세를 보였다.

대형주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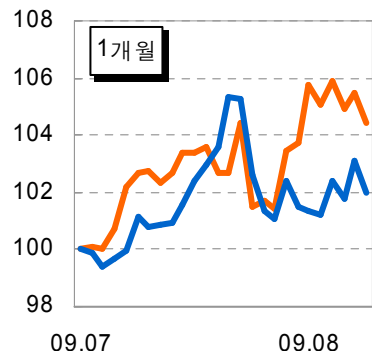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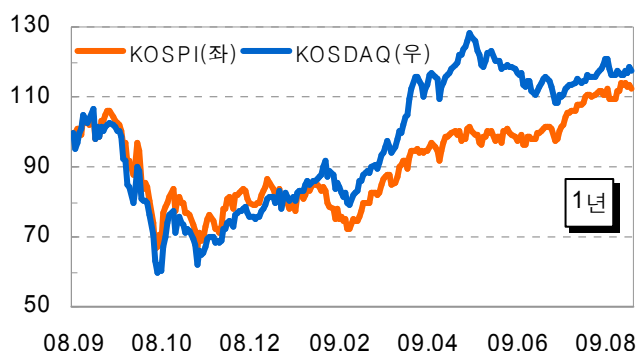
시가총액별로 보면 소형주가 3.47% 기록하면서 가장 상승폭이 컸고 대형주가 2.28% 상승했다. 중형주는 1.30%로 가장 상승폭이 낮게 나타났다. 한달간 삼성전자, 현대차, LG 등이 과거 주가가 2,000을 넘어섰던 시절에도 도달하지 못했던 신고가를 보이면서 관련 그룹주들이 급등했고 중소형주 중에서도 IT와 자동차 부품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의료정밀, 전기전자  
업종 등 두각

업종별로는 의료정밀, 전기전자 등 경기민감주들이 상승세를 보인 반면 은행, 통신, 전기가스 등 경기방어주는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IT, 자동차 등 수출위주의 대형주로 집중됐기 때문이다. 반면 수급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경기방어주, 내수주 등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모습을 보였다.

국내 주가지수 추이 (1년)

기준일 : 2009년 08월 3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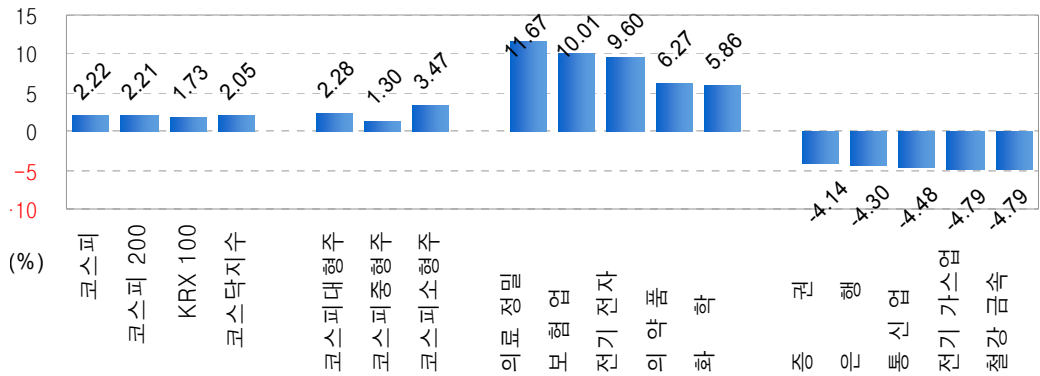


주1) 2008년 8월 31일 종가를 100으로 환산

자료 : 제로인(www.funddoctor.co.kr)

거래소 주요 지수 및 업종별 상하위 월간 수익률

기준일 : 2009년08월31일



자료 : 제로인(www.funddoctor.co.kr)

## 2009년 8월 채권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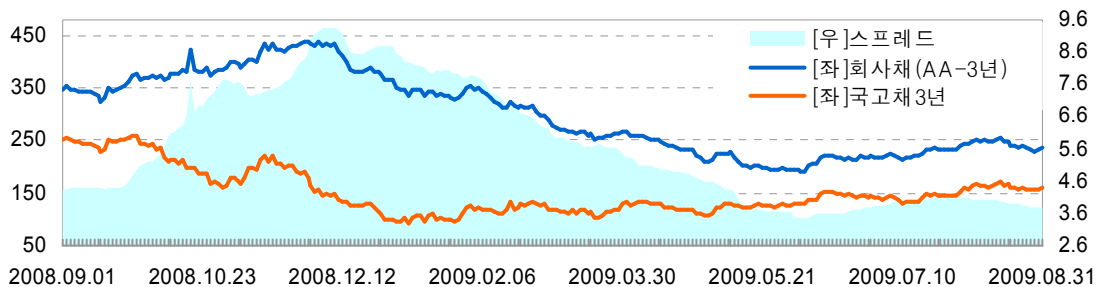
### 채권 시장

기준금리 인상우려,  
채권시장 약세

8월 채권시장은 전반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는 약세장을 연출했다.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채권금리는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지만 저가매수세 유입과 국채발행 축소 기대, 외국인의 국채선물 순매수 전환 등에 힘입으면서 중장기 채권금리의 금리상승폭은 축소됐다.

국내채권지수 추이 (1년)

기준일 : 2009년08월31일



자료 : 제로인(www.funddoctor.co.kr)

지표호조에 따른 경기  
회복 분위기로 월초금  
리 상승세

월초 채권금리는 6월 산업활동 개선과 미국 2분기 GDP 개선으로 대내외 경기회복에 무게가 실리며 상승세로 출발했다. 여기에 외국인들의 국채선물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금리 상승폭은 더욱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소비자물가가 9년래 최저수준을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일축시켰지만 금리 상승세를 진정시키지는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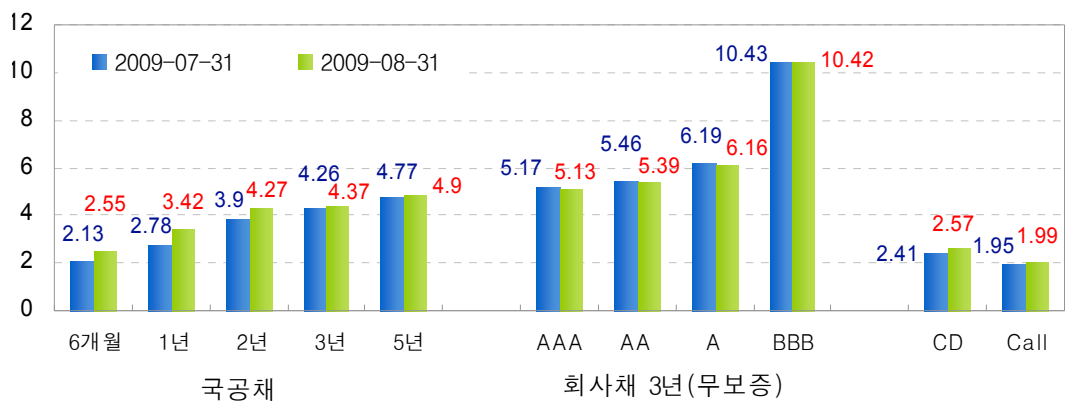
이후 8월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발표와 시장금리가 다소 앞서나갔다는 한은 총재 발언으로 채권금리는 하락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는 분위기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에 따른 우려로 금리하락은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다.

금통위 이후 유입된 저가매수세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에 따른 출구전략 조기시행 우려와 외국인의 국채선물 매도로 금리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 FOMC에서 금리동결을 했지만 점진적인 출구전략 시행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금리상승 압력이 가중됐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금리정책 변화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CD 금리를 비롯한 단기금리의 상승으로 국고채 3년물은 연중 고점인 4.61%를 기록하기도 했다.

월말에 다가서면서 출구전략 논란에 따른 과매도 인식으로 저가매수세가 재유입되고 하반기 국고채 발행물량 축소 가능 기대감에 금리는 하락세로 전환됐다. 또한 선물시장에서 매도세를 이어가던 외국인이 매수세로 반전하는 등 수급여건도 개선되면서 시장분위기는 다시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였지만 금리상승폭을 줄이는데 그쳤다. 결국 8월 한달간 국고채 1년물은 전월말 대비 0.64%포인트 상승한 3.42%를 기록했고, 국고채 3년과 5년물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각각 4.37%, 4.90%로 장을 마감했다.

월간 채권 금리 동향

기준일 : 2009년08월31일



자료:본드웹

## 2009년 8월 주식 펀드 성과

### 주식형 펀드 성과

일반주식펀드, 한달간  
4.90% 상승

펀드평가사 제로인(www.Funddoctor.co.kr)이 9월 1일 공시된 기준 가격으로 8월 한달간 국내주식형펀드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일반주식펀드는 4.90%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수세가 지속된 가운데 대형주를 중심으로 코스피지수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주식형펀드도 2개월 연속 상승흐름을 보였다.

중소형주식펀드는 3.88%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배당주식펀드는 3.77%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KOSPI200인덱스펀드는 2.00%로 주식형 중에서 가장 상승폭이 작았다.

이외에 주식투자비중이 낮은 일반주식혼합펀드와 일반채권혼합펀드는 각각 1.98%, 1.29%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내 유형별 평균 수익률 및 순자산액

기준일 :2009년09월01일

(단위: 개,억원, %)

대유형	소유형	펀드수	순자산액	1개월	3개월	1년	연초후
주식형	일반주식	447	474,028	4.90	11.97	14.05	44.15
	중소형 주식	17	3,502	3.88	5.66	13.72	50.28
	배당 주식	33	39,048	3.77	12.75	10.68	40.39
	KOSPI200인덱스	109	61,894	2.00	16.19	11.42	41.29
주식혼합형	일반주식혼합	68	17,866	1.98	6.66	10.93	22.79
채권혼합형	일반채권혼합	205	36,662	1.29	3.71	9.70	13.56
절대수익추구형	채권알파	116	8,646	0.02	0.86	8.72	8.63
	시장중립	26	7,451	0.23	0.48	6.42	2.22
	공모주하이일드	64	5,421	-0.13	0.36	5.38	5.23
KOSPI				2.22	14.04	7.98	41.56
KOSDAQ				2.05	-2.67	9.45	55.01

주1) 설정액 10억원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 국내 주식펀드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개별 주식 펀드 성과

순자산액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357개의 주식펀드(기타인덱스펀드 제외) 중 단 1개를 제외한 모든 펀드가 8월 한달간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 중 275개 펀드가 코스피지수 상승률(2.22%)보다 높은 성과를 올렸다.

대형우량주 위주로 상승폭이 크게 나타나면서 삼성그룹주를 비롯한 대형주 투자 비중이 높은 펀드들이 월간성과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IT업종에 집중 투자하는 테마펀드의 성과도 우수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고배당주펀드와 금융주섹터 펀드들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펀드별로는 '하나UBS IT코리아증권 1(주식)Class A'가 전기전자업종 강세에 힘입어 한달간 12.77%의 성과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한국투자삼성그룹적립식증권 1(주식)(A)'를 비롯한 삼성그룹주에 투자하는 펀드들이 10위권 내에 대거 이름을 올렸다.

반면 대형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투자셀렉트배당증권 1(주식)(C)'는 0.11% 하락하면서 월간성과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또한 직전월 가장 양호한 성과를 거뒀던 금융주 투자펀드인 '기은SG그랑프리포커스금융증권 [주식]'도 한달간 0.89% 상승에 그치면서 하위권으로 주저앉았다.

그룹주, IT테마펀드  
월간 상위권 휩쓸어

'하나UBS IT코리아증권 1(주식)', 월간 12.77%로 1등



국내 주식형 펀드 월간 성과 상위 Top 10

기준일: 2009년09월01일

(단위: 억원, %)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1개월	3개월	연초후
하나UBS IT코리아증권투자신탁 1(주식)Class A	451	테마주식	12.77	49.74	66.75
한국투자삼성그룹적립식증권투자신탁 1(주식)(A)	28,609	테마주식	8.28	20.69	24.88
한국투자삼성그룹적립식증권투자신탁 2(주식)(A)	3,061	테마주식	8.24	20.86	25.11
한국투자삼성그룹증권투자신탁 1(주식)(C)	1,724	테마주식	8.22	20.75	24.98
삼성H-auto증권투자신탁 1(주식)(A)	187	일반주식	8.20	20.01	23.41
삼성당신올위한국대표그룹증권투자신탁 1(주식)(A)	3,765	일반주식	8.16	19.93	23.28
한국투자골드적립식삼성그룹증권투자신탁 1(주식)(C)	2,195	테마주식	8.15	20.64	24.74
한국투자삼성그룹증권자투자신탁 1(주식)(A)	1,239	테마주식	7.87	19.96	24.04
한국투자삼성그룹증권자투자신탁 2(주식)	851	테마주식	7.65	19.21	23.08
동양모아드림삼성그룹증권투자신탁 1(주식)A	359	테마주식	7.61	23.46	26.79

국내 주식형 펀드 월간 성과 하위 Top 10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1개월	3개월	연초후
한국투자셀렉트배당증권투자신탁 1(주식)(C)	147	배당주식	-0.11	7.28	5.33
동양Great Company (SRI)증권투자신탁 1(주식)A	121	일반주식	0.41	26.92	34.29
푸르덴셜Value포커스증권투자신탁 1(주식)B	477	일반주식	0.46	18.13	23.94
동양파워연금증권투자신탁 1(주식)	123	일반주식	0.57	25.31	32.36
동양프리스타일증권투자신탁 1(주식)	237	일반주식	0.61	26.87	33.98
기은SG그랑프리포커스금융증권[주식]	145	테마주식	0.89	14.82	18.46
NH-CA프리미어인덱스증권투자신탁 1(주식-파생형)Class A	374	K200인덱스	1.12	18.27	22.72
흥국마켓리더스증권투자신탁[주식]C- 1	293	일반주식	1.22	23.65	24.75
NH-CA대한민국베스트30증권투자신탁[주식]Class C	162	일반주식	1.37	23.17	30.59
하나UBS엠프렐러뉴인덱스증권투자신탁K- 1(주식-파생형)Class C	700	K200인덱스	1.54	15.41	19.14

주1) 1개월 수익률순

주2) 순자산액 100억원 이상, 1개월 이상 운용 펀드 대상

주3) 클래스의 경우 대표 펀드만 표시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2009년 8월 채권 펀드 성과

채권형 펀드 성과

금리상승세  
채권펀드 약세

8월 채권시장은 전반적으로 금리가 상승(채권가격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채권종류별로는 회사채 중기물과 일부 금융채의 금리는 소폭 하락한 반면 나머지 채권들은 금리가 상승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8월 한달간 일반채권 펀드는 0.24%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초단기채권 펀드는 0.19% 상승했다. 중기채권펀드도 0.02%로 소폭 상승세를 보였으나 국고채 투자비중이 높은 우량채권펀드는 홀로 0.07% 하락하는 부진한 성과를 기록했다.

국내 채권형 유형 평균 수익률 및 순 자산액

기준일 :2009년09월01일

(단위: 개,억원, %)

대유형	소유형	펀드수	순자산액	1개월	3개월	1년	연초후
채권형	일반채권	45	13,150	0.24	0.62	5.43	4.42
	초단기채권	4	1,505	0.19	0.74	5.41	2.83
	일반중기채권	21	25,049	0.02	-0.20	10.04	1.75
	우량채권	17	10,966	-0.07	0.07	7.03	1.59
	하이일드 채권	8	629	0.35	0.83	6.68	4.15
KIS채권지수(1년 종합)				0.03	0.53	6.21	2.84
MMF	MMF	130	740,622	0.17	0.56	3.64	1.81

주1) 설정액 50억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국내 채권펀드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개별 채권 펀드 성과

순자산액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이 넘는 62개 채권펀드 가운데 37개 펀드가 플러스 성과를 거뒀다.

우량채권펀드 부진

한달간 회사채 금리 상승폭이 국공채 상승폭보다 작게 나타나면서 회사채 비중이 높은 펀드들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펀드별로 살펴보면 ‘한국투자장기회사채형증권 1(채권)(A)’가 0.49%의 수익률로 월간 성과 1위를 차지했다. 이 펀드는 전반적인 금리 상승 속에서 유일하게 금리가 하락한 회사채 2~3년물에 대부분을 투자하고 있었던 것이 양호한 성과로 이어졌다. 뒤를 이어 ‘아이러브평생직장증권6호(채권)Class C 2’가 0.48%로 2위를 기록했다.

반면 ‘삼성우량증권 1[채권](C)’는 -0.30%의 부진한 수익률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 펀드는 금리가 가장 크게 상승했던 국공채와 통안채, 금융채에만 투자하고 있어 성과에 악영향을 받았다.

[김주진 제로인 펀드애널리스트 [www.funddoctor.co.kr](http://www.funddoctor.co.kr)]

국내 채권형 펀드 월간 성과 상위 Top 10

기준일: 2009년 09월 01일

(단위: 억원, %)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1개월	3개월	연초후	
한국투자장기회사채형증권투자신탁 1(채권)(C)	한국운용	305	중기채권	0.48	0.19	5.81
아이러브평생직장증권투자신탁6호(채권)Class C 2	아이운용	455	일반채권	0.48	1.44	7.34
아이러브평생직장채권 4Class C 2	아이운용	442	일반채권	0.45	1.04	9.16
한국투자퇴직증권투자신탁 1(채권)	한국운용	145	일반채권	0.43	0.59	3.41
현대플래티늄장기회사채형증권투자신탁(채권)C 2	현대인베스트먼트	805	중기채권	0.41	0.55	0.00
하이굿초이스증권투자신탁 1[채권]	하이운용	121	일반채권	0.34	0.51	5.10
동양High Plus증권투자신탁 1(채권)A	동양운용	291	일반채권	0.31	-0.10	6.48
하나UBS장기증권투자신탁 1[회사채]Class C	하나UBS	151	일반채권	0.31	0.35	5.21
한국투자퇴직연금증권투자신탁 1(국공채)	한국운용	237	우량채권	0.29	1.06	3.13
신한BNPP BEST CHOIC단기증권투자신탁 4[채권]	신한BNPP	228	일반채권	0.28	0.59	4.22

국내 채권형펀드 월간 성과 하위 Top 10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1개월	3개월	연초후	
삼성우량증권투자신탁 1[채권](C)	삼성운용	163	일반채권	-0.30	-0.16	2.11
피델리티코리아증권투자신탁N(채권)	피델리티운용	545	일반채권	-0.26	-0.36	-1.50
한국투자KINDEX국고채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한국운용	1,136	중기채권	-0.20		
삼성KODEX국고채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삼성운용	1,611	중기채권	-0.20		
삼성장기주택마련증권투자신탁 1[채권]	삼성운용	160	중기채권	-0.19	-0.36	0.28
KStar국고채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KB운용	3,131	중기채권	-0.19		
우리KOSF국고채상장지수증권투자신탁[채권]	우리자산운용	3,252	우량채권	-0.19		
한화꿈에그린증권투자신탁 1(채권)(C2)	한화운용	346	일반채권	-0.19	0.23	3.06
삼성국공채증권투자신탁 1[채권]	삼성운용	102	우량채권	-0.18	-0.15	0.91
와이즈Premier12증권투자신탁 2(채권)	와이즈에셋운용	308	중기채권	-0.15	-0.15	2.90

주1) 1개월 수익률순

주2) 순자산액 100억원 이상, 1개월 이상 운용 펀드 대상

주3) 클래스의 경우 대표 펀드만 표시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2. 2009년 8월 해외펀드 동향

글로벌 증시 상승, 중국펀드 나홀로 급락

글로벌 주식시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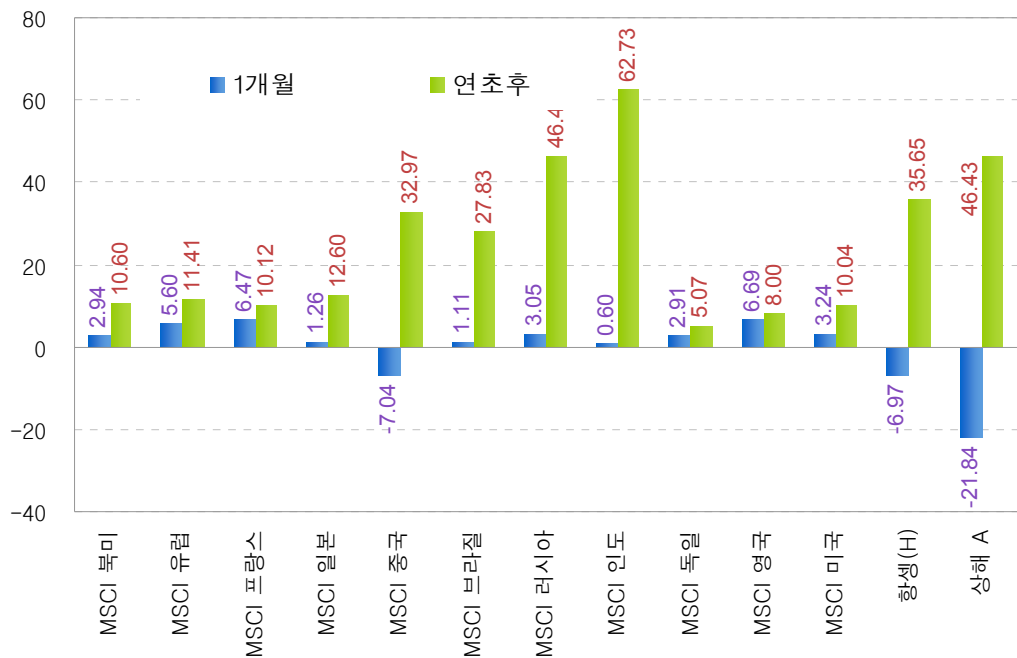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 증시가 지표호조와 실적개선 효과로 상승세를 이끌면서 글로벌 주식시장은 상승세가 이어졌다. 이에 MSCI 글로벌 주식은 3.60% 상승했고 그중에서도 유럽증시의 강세가 눈길을 끌었다.

러시아, 브라질, 인도 등 주요 신흥국 증시도 상승세를 보였지만 중국 증시의 급락세가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상승폭은 축소됐다.

중국증시 급락이 중국의 경기회복 지연 우려감으로 번지면서 원유와 원자재가격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해외 주식 주요 지수 등락률

(기준일 : 2009년 8월 31일)



자료: 이데일리

MSCI북미주식  
2.94% 상승

8월 뉴욕증시는 경기지표 개선에 힘입어 상승세로 출발했다. 미국 정부의 자동차 산업 부양책으로 7월 차량 판매가 크게 개선되고 모토로라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기회복 기대감이 확산됐다. 7월 고용지표 역시 기대이상으로 개선된데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경기후퇴의 끝이 보이고 있다고 언급, 투자심리 개선에도 도움이 됐다.

하지만 급등에 따른 부담이 높아진 가운데 경기회복 지연 우려가 부각되고 중국 증시 급락으로 상품 및 에너지주가 하락하며 지수를 압박했다. 또한 6개월 연속 상승으로 가격부담이 커진 은행주에 대한 투자이견 강등으로 금융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MSCI북미주식은 2.94% 상승하는데 그쳤다.

**MSCI유럽주식,  
5.60% 상승**

제조업 경기 개선과 은행들의 실적호조로 상승출발한 유럽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개선과 미국 경기지표 회복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유로존 구매관리자지수(PMI)가 15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데 힘입어 유럽증시가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하지만 6개월간 지속된 랠리에 대한 부담과 중국 증시의 급락세가 악영향을 주면서 상승폭이 축소됐다.

**MSCI일본주식,  
1.26%**

등락을 거듭한 MSCI일본주식은 1.26% 상승했다.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인해 위험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속됐다.

일본 소비자 심리지표 및 제조업 지수 등이 개선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7월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고용여건이 악화됐다. 중국 증시가 공급물량 증가 우려로 인해 약세를 보인 점도 일본 증시에 악재로 작용하며 변동성을 키웠다.

**MSCI중국주식,  
-7.04%**

같은 기간 MSCI중국주식은 7.04% 급락했고, 상해종합지수는 지난 6월 이후 최대폭인 21.84% 하락해 지난 5월 중순 수준으로 낮아졌다.

원자바오 총리가 중국 경제회복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등 경기회복 속도에 대한 경계심리와 신규 대출 규제에 따른 유동성 축소우려가 확산되며 중국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금융당국이 자기자본비율을 상향조정한다며 대출위험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은행의 신규대출이 급격히 축소됐다. 주식시장 공급물량 증가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의 과잉생산 규제 발표에 구조조정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추가하락에도 중국 정부의 별다른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의 실망감도 확산됐다.

**MSCI인도주식  
0.60%**

올 들어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인도증시는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생산 감소가 악재로 작용하면서 하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산업생산 지표 등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고, 악재로 작용했던 농업 작황도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MSCI 인도주식은 0.60%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MSCI러시아주식  
3.05%**

러시아증시는 원유 가격 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세계 경기회복에 기대로 원유 수요도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러시아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다. 올초 30달러 선까지 하락했던 원유가격도 8월말에는 70달러 수준을 회복했다. 이에 한달간 MSCI러시아주식은 3.05%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MSCI브라질주식  
1.11%**

MSCI브라질주식은 강한 조정 속에서도 8월 한달간 1.11% 상승했다. 급등락을 거듭하면서 상승흐름이 약해진 모습을 보였다. 지표개선과 함께 올해와 내년 성장전망치 역시 꾸준히 높아졌다. 하지만 환율이 지나치게 많이 떨어지면서 수출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그동안 상승에 따른 투자심리 악화로 조정을 받으면서 불안감도 동시에 나타났다.

**해외 펀드 세부 유형별 성과**

북미, 유럽, 남미 신흥국 등 다수의 펀드들이 양호한 성과를 냈지만 해외 주식펀드 순자산액의 37%를 차지하는 중국펀드가 급락하면서 8월 한달간 해외주식펀드는 2.2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주식펀드,  
중국펀드 부진에  
8월 손실

7월에 이어 미국과 유럽주식펀드 등 선진국 투자펀드들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신흥국 펀드들은 중국 증시 급락에 따른 악영향으로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상승흐름이 약해진 모습을 보였다.

북미주식펀드와 유럽주식펀드는 각각 2.98%, 6.62% 상승했고, 신흥국주식펀드는 1.35%를 기록했다.

섹터펀드 중에는 은행들의 실적 호조로 금융섹터펀드가 8.96% 수익률로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금융섹터펀드,  
강세 지속

개별국가 별로는 러시아주식펀드가 8.42%의 수익률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월 중반이후부터 강세를 보인 브라질주식펀드와 러시아주식펀드는 각각 6.43%, 5.38%를 기록했다. 반면 일본주식펀드는 1.06%로 상승폭이 가장 작았다.

중국주식펀드,  
-8.15%

해외주식혼합과 해외채권혼합펀드는 각각 -0.34%, 0.36% 수익률을 기록했고,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커머더티 펀드는 2.78% 상승했다.

해외펀드 유형별 수익률 및 순자산액

기준일 :2009년09월01일

(단위: 개,억원, %)

대유형	소유형	펀드수	순자산액	1개월	3개월	1년	연초후
해외주식형		778	402,776	-2.27	7.15	-14.02	39.19
	글로벌주식	64	4,854	2.84	10.62	-23.79	22.60
	신흥국주식	124	110,199	1.35	7.36	-13.43	47.95
	유럽주식	33	4,537	6.62	11.94	-17.11	13.98
	북미주식	5	177	2.98	9.12	-28.85	12.92
	아시아태평양주식	20	4,473	0.63	9.51	-5.23	30.80
	아시아태평양주식(ex J)	43	32,037	-0.35	9.59	-3.07	35.94
	동남아주식	26	6,316	0.79	15.91	-5.95	45.66
	아시아신흥국주식	44	26,125	-2.03	8.17	-6.52	43.40
	유럽신흥국주식	22	6,603	7.81	13.67	-36.58	45.24
	남미신흥국주식	30	10,747	4.82	11.80	-23.56	53.48
	프론티어마켓주식	12	397	4.05	9.11	-40.95	10.49
	일본주식	47	4,924	1.91	6.03	-29.20	4.64
	중국주식	120	149,422	-8.15	4.88	-14.22	34.20
	인도주식	25	15,875	2.85	7.11	4.57	63.57
	브라질주식	20	3,611	5.86	14.43	-8.50	78.27
	러시아주식	19	4,384	8.42	8.39	-52.95	71.62
	에너지섹터	24	2,999	-0.52	-0.19	-42.83	12.00
	기초소재섹터	23	4,900	3.22	5.25	-24.52	34.95
	소비재섹터	11	823	5.11	15.44	-15.16	26.82
	헬스케어섹터	4	503	1.52	12.44	-11.95	10.49
	금융섹터	15	2,097	7.22	13.70	-7.71	39.57
	멀티섹터	28	6,262	2.30	9.21	-25.71	15.22
해외주식혼합형		46	43,694	-0.34	10.66	-3.63	42.82
해외채권혼합형		62	4,069	0.36	3.82	-0.04	13.33
해외채권형		13	3,177	1.78	6.48	0.47	13.40
해외부동산형		37	12,516	3.42	7.75	-18.98	4.95
커머더티형		34	3,532	2.78	-0.20	-34.80	11.03

주1) 펀드수, 순자산액은 해당유형 가중평균수익률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계산시 대상으로 삼은 설정액 10억원(채권형은 50억원)이상 펀드들의 합계

개별 해외 펀드 성과

순자산액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이 넘는 337개 해외주식펀드 중 211개 펀드가 플러스(+)수익률을 기록했다. 특히 유럽신흥국과 금융섹터펀드

유럽신흥국, 금융섹터  
펀드 성과 우수

강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중국본토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성과가 최하위권을 기록하는 등 중국주식펀드의 성과는 부진했다.

개별펀드별로 살펴보면 ‘템플턴이스턴유럽증권자(주식) Class A’가 13.65%로 가장 우수한 성과를 올렸다.

‘템플턴이스턴유럽증권자(주식)Class A’  
한달간 13.65% 상승

글로벌 금융주에 주로 투자하는 ‘한국투자월스트리트투자은행증권 1(주식)A’와 ‘하나USB글로벌금융주의귀환[주식]Class A’는 각각 12.96%, 12.21%로 뒤를 이었다.

반면 중국 본토에 투자하는 ‘미래에셋China A Share증권자 1(H)(주식)종류A’는 -20.79%로 가장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삼성CHINA2.0본토증권자 1[주식](A)’, ‘PCAChinaDragonAShare증권A-1[주식]Class A’도 각각 -19.55%, -18.96%를 기록하며 중국본토 투자펀드가 최하위권으로 밀려났다.

[조성욱 제로인 펀드애널리스트 [www.funddoctor.co.kr](http://www.funddoctor.co.kr)]

해외 주식형 펀드 월간 성과 상위 10

기준일: 2009년09월01일

(단위: 억원, %)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1개월	3개월	연초후
템플턴이스턴유럽증권자(주식)Class A	337	유럽신흥국주식	13.65	23.54	13.03
한국투자월스트리트투자은행증권 1(주식)(A)	303	금융섹터	12.96	17.32	10.65
하나UBS글로벌금융주의귀환증권[주식]Class A	136	금융섹터	12.21	20.36	-0.62
알리안츠GI동유럽증권자(주식)(C/A)	160	유럽신흥국주식	10.17	15.39	-0.58
JP모간러시아증권자(주식)	759	러시아주식	9.85	48.12	29.38
미래에셋동유럽업종대표증권자 1(주식)종류A	340	유럽신흥국주식	8.60	35.04	16.81
삼성글로벌파이낸셜서비스증권 1[주식](A)	131	금융섹터	8.45	24.49	15.01
우리Eastern Europe증권 1[주식]Class A 1	1,015	유럽신흥국주식	8.06	27.82	5.49
KB유로컨버전스증권자(주식)A	166	유럽신흥국주식	7.88	11.96	-0.21
PCA유러피언리더스증권자- 1[주식]Class A	490	유럽주식	7.85	5.86	0.96

해외 주식형 펀드 월간 성과 하위 10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1개월	3개월	연초후
미래에셋China A Share증권자 1(H)(주식)종류A	122	중국주식	-20.79	9.00	
삼성CHINA2.0본토증권자 1[주식](A)	682	중국주식	-19.55		
PCAChinaDragonAShare증권A- 1[주식]Class A	1,694	중국주식	-18.96	8.26	28.25
푸르덴셜중국본토증권자H(주식)A	597	중국주식	-16.99	12.81	25.73
한화꿈에그린차이나증권 1(주식)(A)	520	중국주식	-9.72	19.17	16.07
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증권 2(주식)종류A	4,465	중국주식	-9.46	27.41	14.68
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증권 3(주식)종류A	1,017	중국주식	-9.34	27.40	14.63
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증권 1(주식)종류A	19,618	중국주식	-9.32	27.36	14.52
미래에셋차이나인프라섹터증권자 1(주식)종류A	280	중국주식	-8.68	19.04	11.29
동부차이나증권 1[주식]Class A	206	중국주식	-8.36	27.74	24.60

주1) 1개월 수익률순

주2) 순자산액 100억원 이상, 1개월 이상 운용 펀드 대상

주3) 클래스의 경우 대표 펀드만 표시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http://www.funddoctor.co.kr))

세계 주요 지수 기간별 성과

(기준일 : 2009년 8월 31일)

(단위: %)

지역별 주요 지수	증가	수익률					상관 계수
		1개월	3개월	1년	5년	연초후	
글로벌 주식	296.16	3.06	7.80	-17.69	0.85	13.97	0.50
신흥국 주식	38,029.13	-0.14	4.46	-3.56	12.58	35.75	0.76
북미주식	1,112.34	2.94	7.53	-20.51	-0.77	10.60	0.26
남미신흥국주식	6,265.09	2.01	1.70	-2.73	18.07	26.69	0.32
유럽주식	1,046.04	5.60	10.23	-16.32	1.53	11.41	0.40
MSCI 지수 (CR)							
유럽신흥국주식	3,896.47	4.25	0.22	-30.05	6.91	42.98	0.50
아-태주식	97.60	0.20	6.75	-13.26	2.89	23.36	0.78
아-태주식(일본제외)	383.13	-0.66	8.11	-1.39	9.17	35.48	0.82
아시아신흥국주식	545.09	-2.25	6.08	3.85	12.00	41.91	0.86
일본주식	596.78	1.26	5.36	-23.20	-2.60	12.60	0.66
중국주식	56.78	-7.04	1.61	-0.92	20.23	32.97	0.68
브라질주식	20,132,268	1.11	-2.21	-5.67	17.82	27.83	0.31
러시아주식	611.52	3.05	-9.89	-42.23	5.28	46.43	0.48
인도주식	622.36	0.60	6.48	6.85	23.53	62.73	0.48
MSCI WI 섹터지수 (CR)							
에너지	190.62	1.72	-3.85	-24.21	6.78	1.27	0.34
기초소재	173.18	1.13	3.89	-24.83	6.89	23.66	0.54
산업재	107.14	3.85	6.85	-26.19	-0.32	8.79	0.51
소비재(비생필품)	78.16	1.54	8.06	-15.59	-2.58	19.87	0.50
소비재(생필품)	106.07	1.33	7.50	-9.94	3.83	3.19	0.35
헬스케어	89.75	2.19	10.40	-12.74	-0.05	3.23	0.28
금융	74.97	9.08	16.97	-22.68	-6.41	21.82	0.42
IT	42.33	3.46	8.97	-14.22	2.49	17.38	0.33
통신서비스	47.95	0.99	7.70	-13.80	-0.76	-4.25	0.32
공공서비스	104.34	3.37	4.70	-22.19	4.36	-5.35	0.36
섹터지수 (CR)							
KRX 자동차	964.27	15.01	34.35	35.01	13.60	115.27	0.81
KRX 헬스케어	1,175.03	6.02	15.38	8.37	28.70	21.68	0.62
KRX 은행	849.54	0.33	30.36	-7.17	11.74	67.58	0.72
KRX IT	1,158.99	10.45	21.56	45.07	14.42	88.87	0.90
KRX 반도체	1,433.30	14.36	25.85	61.51	22.38	123.97	0.86
글로벌 채권 지수							
JPM GBI	155.18	0.91	2.37	4.15	4.42	-0.20	-0.26
JPM EMBI	218.40	2.03	5.36	-1.21	6.49	18.10	0.42
WTI(\$/배럴)	69.96	0.22	-0.71	-50.90	23.31	29.16	0.21
두바이유(\$/배럴)	70.36	3.81	6.16	-36.98		64.09	0.22
금(\$/온스)	952.20	-0.20	-2.76	14.18	58.32	8.16	0.03
대두(\$/부셸)	1,100.00	4.17	0.67	15.18	66.88	30.24	0.15
옥수수(\$/부셸)	326.20	-3.92	-24.32	-45.15	43.85	-22.21	0.08
설탕(\$/lb NYBOY)	24.39	31.07	44.86	57.22	54.69	87.09	0.11
CRB 상품 가격 지수	253.28	-1.45	-2.69	-35.00	1.54	8.59	0.23
리츠							
글로벌	1,417.68	7.21	13.51	-26.75	-0.66	20.16	0.47
유럽	1,713.62	16.61	22.85	-26.37	-0.72	20.49	0.41
아시아	1,371.74	-1.26	7.71	-14.38	4.01	28.35	0.66
호주	644.70	12.83	15.41	-44.09	-12.77	-8.09	0.36
일본	1,829.03	1.14	10.20	-24.36	3.55	14.23	0.53

주요 리보 금리 및 환율

(기준일 : 2009년 8월 31일)

리보(6개월) (단위: %, %P)	증가	2009년	2009년	2008년	2007년	등락률	
		7월 말	6월 말	말	말	1개월	연초후
미국	0.76	0.93	1.11	1.75	4.60	-0.17	-1.00
유로	1.08	1.13	1.31	2.98	4.71	-0.05	-1.90
영국	0.91	1.10	1.41	2.96	5.94	-0.19	-2.05
일본	0.60	0.64	0.70	0.95	0.98	-0.04	-0.36
한국(코리보)	2.90	2.67	2.68	4.93		0.23	-2.03

환율 (원/각국통화) (단위: 원, %)	증가	2009년	2009년	2008년	2007년	등락률	
		7월 말	6월 말	말	말	1개월	연초후
미국(달러)	1,249.50	1,222.65	1,273.30	1,261.35	934.50	26.85	-11.85
일본(100엔)	13.47	12.84	13.20	13.90	8.32	0.64	-0.43
유로(EURO)	1,794.41	1,732.02	1,784.85	1,761.35	1,375.96	-21.88	-22.91
영국(파운드)	2,036.00	2,024.55	2,093.35	1,843.25	1,866.00	1.23	-10.86
브라질(헤알)	667.86	655.20	649.95	540.79	529.77	-2.04	-18.49
인도(루피)	25.56	25.51	26.58	25.97	23.69	-8.78	-10.87
러시아(루블)	39.31	38.91	40.85	41.31	38.20	-7.53	-6.49
중국(위안)	182.82	179.81	186.50	184.32	128.34	3.01	-1.50

주1) 5년 수익률은 연환산 수익률임

자료: 이데일리

주2) 상관계수: 최근 3년간 코스피200지수와 상관관계를 계산한 것임.

주3) CR(Capital Return): 배당을 포함하지 않은 주가지수로 계산.

주4) JPM GBI: JP모건 글로벌 채권지수(JPMorgan Government Bond Index Global TR)

주5) JPM EMBI: JPM 글로벌 신흥국 채권지수(JPMorgan Emerging Market Bond Index Global TR)

주6) R/J CRB :Reuters-Jefferies CRB Index(TR)로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등 주요 19개 상품선물가격에 가중치를 달리 적용해 산출한 지수임

주7) 리츠지수는 FTSE EPRA/NAREIT (TR)지수임.

주8) 리보금리: 런던 금융시장에서 은행간 대출시 적용되는 통화별 대출금리로 국제금융시장의 단기 기준 금리.

주9) 코리보의 경우 국내 시중은행 7곳과 특수은행 3곳의 기간별 금리를 통합해 국내내 산출.



2009년 8월 펀드자금 동향

MMF에서 큰 폭 자금 이탈...주식펀드 환매도 지속돼...

공모펀드 자금동향

단기성 자금 대거 이탈  
주식형에서도 환매 지속

펀드평가사 제로인(www.FundDoctor.co.kr)의 유형분류 기준에 따라 펀드 자금동향을 조사한 결과, 8월 한달간 공모펀드 설정액은 9조 6,245억원 감소한 239조 8,932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주식시장 강세가 최근 몇 개월간 지속되면서 원금회복에 따른 환매세가 이어졌다. 특히 8월에는 MMF에서의 자금유출이 크게 발생했는데 이는 금리정책 방향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데다 출구전략도 시기를 엿보면서 단기성 자금이 대거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자산액 역시 7조 2,403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증시상승으로 주식펀드에서는 순자산액이 증가했지만 MMF에서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전체 자금은 감소했다. 해외주식형 비과세 폐지에 따른 신규자금 유입은 줄어드는 반면 유출세가 커지면서 순자산액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국내 설정 공모 펀드 유형별 자금 추이

기준일: 2009년 9월 1일

(단위:억원)

펀드 유형	펀드수	설정액			순자산액		
		7월말	8월말	증감	7월말	8월말	증감
주식형	1,209	765,038	746,456	-18,583	657,090	672,211	15,121
주식혼합형	196	27,050	27,154	104	26,845	27,467	622
채권혼합형	449	44,271	42,761	-1,509	45,963	44,810	-1,153
채권형	392	57,927	60,354	2,427	60,379	62,786	2,407
절대수익추구형	410	22,635	21,587	-1,048	23,386	22,292	-1,094
부동산형	24	12,154	12,154	0	12,881	12,756	-125
MMF	237	801,682	735,782	-65,900	813,675	745,611	-68,064
기타	1,277	98,467	91,286	-7,181	84,548	76,723	-7,825
<b>국내 소계</b>	<b>4,498</b>	<b>1,829,224</b>	<b>1,737,533</b>	<b>-91,691</b>	<b>1,724,767</b>	<b>1,664,657</b>	<b>-60,111</b>
해외주식형	1,321	569,181	564,470	-4,711	417,299	404,325	-12,975
해외주식혼합형	103	61,046	60,527	-519	44,314	43,787	-527
해외채권혼합형	120	4,524	4,396	-127	4,295	4,190	-106
해외채권형	47	2,481	3,292	811	2,478	3,378	899
해외부동산형	62	20,660	20,488	-172	12,210	12,536	326
커머더티인덱스형	35	3,370	3,306	-65	3,246	3,085	-161
해외기타	85	4,692	4,920	228	3,383	3,633	250
<b>해외 소계</b>	<b>1,773</b>	<b>665,954</b>	<b>661,399</b>	<b>-4,554</b>	<b>487,226</b>	<b>474,934</b>	<b>-12,292</b>
<b>국내외 총합계</b>	<b>6,271</b>	<b>2,495,178</b>	<b>2,398,932</b>	<b>-96,245</b>	<b>2,211,993</b>	<b>2,139,590</b>	<b>-72,403</b>

주1) 제로인 유형분류 기준.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주2) 주식형내 ETF제외

### 국내 주식펀드 자금동향

국내주식형펀드, 한 달간 1조 8,583억원 감소

2009년 8월말 기준으로 국내 주식형펀드 설정액(ETF제외)은 7월말에 비해 1조 8,583억원 줄어든 7조 6,456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부 유형별 자금 동향을 살펴보면 기타인덱스를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자금이 빠져나간 가운데 일반주식펀드에서 1조 4,770억원이 이탈하며 가장 두드러진 감소세를 보였다. 국내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면서 어느 정도 손실을 만회한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환매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삼성그룹주펀드가 속한 테마주식펀드와 배당주식펀드에서도 각각 2,974억원, 1,220억원의 자금유출이 발생했다.

증시상승에 순자산액은 증가

설정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내주식펀드 순자산액(ETF제외)은 주가 상승덕으로 8월 한달간 1조 5,121억원 증가했다. 일반주식펀드의 순자산액은 1조 508억원 증가했고, 테마주식펀드와 배당주식펀드는 각각 2,409억원, 356억원이 늘어났다.

### 국내 주식형 공모 펀드 유형별 자금 추이

기준일: 2009년 9월 1일

(단위: 억원)

펀드 유형	펀드수	설정액			순자산액		
		7월말	8월말	증감	7월말	8월말	증감
일반 주식	741	573,388	558,618	-14,770	483,705	494,213	10,508
중소형 주식	40	3,919	3,803	- 116	3,502	3,534	31
배당 주식	60	44,374	43,154	- 1,220	38,756	39,112	356
KOSPI200인덱스	167	44,920	44,616	- 303	42,476	43,071	595
기타인덱스	40	7,693	8,493	800	6,904	8,125	1,221
테마주식	161	90,745	87,771	- 2,974	81,747	84,156	2,409
ETF	33	27,690	19,803	- 7,887	31,199	26,453	- 4,746
주식형(ETF제외)	1,209	765,038	746,456	-18,583	657,090	672,211	15,121
주식형 총 계(ETF포함)	1,242	792,728	766,258	-26,470	688,290	698,664	10,375

주1) 제로인 유형 분류 기준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 해외 주식펀드 자금동향

8월 한달간 해외주식형 자금 4,711억원 감소

7월에 이어 해외주식형 펀드는 8월 한달간 4,711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글로벌 증시하락세로 순자산액도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러시아주식펀드와 인도주식펀드에서는 전월대비 각각 265억원, 156억원이 자금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주식펀드에서 자금 큰 폭 감소

반면 중국주식펀드는 경기 회복 속도에 대한 경계심리와 추가적인 대출 규제 우려 여파로 자금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머징마켓 투자펀드를 중심으로 자금유출

이외에 아시아태평양양주식(EX. J)펀드에서 1,091억원, 글로벌신흥국주식펀드에서 1,775억원의 자금이 감소하는 등 신흥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 이탈세가 두드러졌다.

섹터펀드 중에는 원자재 가격 강세로 수혜가 예상되는 기초소재섹터펀드로 432억원이 유입됐고 금융섹터펀드에도 245억원의 자금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설정 해외 투자 공모 주식형 펀드 유형별 자금 추이

기준일: 2009년 9월 1일

(단위: 억원)

펀드 유형	펀드수	설정액			순자산액		
		7월말	8월말	증감	7월말	8월말	증감
글로벌주식	102	7,651	7,587	-64	4,789	4,896	107
유럽주식	61	7,010	6,868	-142	4,384	4,580	196
북미주식	15	310	336	26	202	228	26
아시아태평양주식	28	5,732	5,640	-92	4,534	4,489	-45
아시아태평양주식(ex J)	62	41,337	40,246	-1,091	33,156	32,085	-1,071
동남아주식	51	8,700	8,581	-119	6,419	6,377	-42
신흥국주식	198	147,034	145,259	-1,775	110,153	110,244	91
아시아신흥국주식	66	37,732	37,233	-499	27,050	26,150	-901
유럽신흥국주식	41	12,711	12,530	-181	6,238	6,630	392
남미신흥국주식	56	15,648	15,442	-205	10,305	10,644	339
프론티어마켓주식	21	801	791	-10	400	412	12
기타이머징주식	6	46	45	-1	21	22	0
에너지섹터	53	4,819	4,767	-52	3,089	3,057	-32
기초소재섹터	39	6,031	6,463	432	4,451	4,953	502
소비재섹터	20	1,269	1,251	-18	807	835	29
헬스케어섹터	9	624	615	-9	519	519	0
금융섹터	22	3,004	3,249	245	1,872	2,122	250
정보기술섹터	5	23	21	-1	15	14	-0
공공서비스섹터	2	144	140	-4	80	81	1
멀티섹터	49	9,615	9,411	-204	6,277	6,289	13
브라질주식	38	4,281	4,237	-44	3,434	3,602	168
러시아주식	28	12,335	12,599	265	3,979	4,392	414
호주주식	6	84	78	-5	56	57	1
독일주식	4	12	12	-0	7	7	0
타이완주식	13	176	192	15	149	157	8
일본주식	74	10,148	9,900	-248	4,927	4,898	-29
중국주식	175	212,023	210,937	-1,086	164,035	150,006	-14,029
인도주식	50	19,520	19,676	156	15,713	16,322	609
말레이시아주식	5	53	52	-1	48	47	-1
기타국가주식	22	308	312	4	190	208	19
<b>총 계</b>	<b>1,321</b>	<b>569,181</b>	<b>564,470</b>	<b>- 4,711</b>	<b>417,299</b>	<b>404,325</b>	<b>-12,975</b>

주1) 제로인 유형 분류 기준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상반기 신규 설정 펀드

8월 한달간 88개 공모  
펀드 신규 설정

8월들어 클래스 펀드를 기준으로 총 88개 펀드가 신규 설정됐다. 이중 28개 펀드는 8월 이전에 설정된 펀드 중에서 클래스만 추가로 설정된 경우다.

실제 운용펀드 기준으로 살펴보면 총 36개 펀드가 신규로 설정됐다. 이중 ETF펀드가 13개로 가장 많았다.

주식펀드는 운용펀드 기준으로 6개(일반주식 1개, 테마주식 5개)가 설정됐다. 8월 신규 출시된 주식펀드에서는 그룹주에 투자하는 펀드들이 많이 설정돼 눈길을 끌었다. 최근 대형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펀드 투자자들의 관심이 국내 대표 그룹에 투자하는 상품에 쏠리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해외주식펀드는 운용펀드 기준으로 5개 펀드가 설정됐다. 이중 2개가 중국주식펀드고, 인도, 브릭스, 에너지섹터 펀드 등이 각각 설정됐다.

9월 1일 기준으로 신규펀드 수탁고는 총 2,036억원으로 국내주식펀드 출시 비중이 높았다. 펀드별로는 펀드전용 클래스인 '한화VIO증권투자신탁 1(주식-파생형)Cf 2'와 '삼성인디아2.0증권투자신탁 2[주식](Cf)'에 각각 300억원, 250억원으로 자금이 가장 많이 유입됐다.

[김주진 제로인 펀드애널리스트 [www.funddoctor.co.kr](http://www.funddoctor.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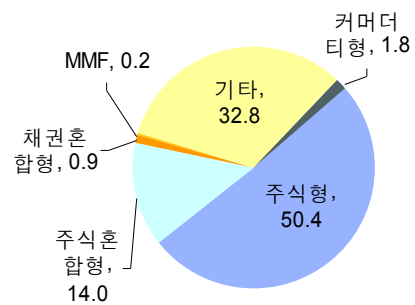
**신규펀드 설정현황 (공모)**

기준일 : 2009년 9월 1일

(단위: 억원, 개, %)

펀드 유형	국내투자		해외투자		전 체	
	설정액	펀드수	설정액	펀드수	설정액	펀드수
주식형	521	36	504	14	1,025	50
주식혼합형	285	6	0	3	285	9
채권혼합형	19	5	-	-	19	5
채권형	0	3	-	-	0	3
절대수익추구형	-	-	-	-	-	-
부동산형	-	-	-	-	-	-
MMF	4	2	-	-	4	2
기타	667	14	-	-	667	14
커머더티형	-	-	36	5	36	5
운용사 전체	1,496	66	540	22	2,036	88

**신규 펀드 시장 비중 현황**



- 주1) 제로인 유형 분류 체계에 의한
- 주2) ETF는 제외, 클래스 펀드 기준 산출
- 주3) 8월 3일 ~ 8월 31일 동안 설정된 펀드로 설정액 기준은 9월 1일 기준임.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8월 신규설정 공모펀드 설정액 상위 펀드**

기준일 : 2009년 9월 1일

단위: 개, 억원

펀드명	운용사	설정일	설정액	펀드유형
한화VIO증권투자신탁 1(주식-파생형)Cf 2	한화운용	20090805	300	주식형
삼성인디아2.0증권투자신탁 2[주식](Cf)	삼성운용	20090825	250	해외주식형
신한BNPP 증권투자신탁KBHn- 1[ELS-파생형]	신한BNP 운용	20090828	205	기타
신한BNPP KOSPI200컨버전증권투자신탁 2[채권혼합-파생형]	신한BNP 운용	20090828	182	주식혼합형
동양 2Stock Stepdown증권투자신탁54(ELS-파생형)	동양운용	20090812	105	기타
신한BNPP변동성밸런스증권투자신탁 1[주식혼합]A클래스	신한BNP 운용	20090813	102	주식혼합형
동양 2Star증권투자신탁S- 1(ELS-파생형)	동양운용	20090821	100	기타
삼성CHINA2.0분토카멜레온증권투자신탁 2[주식]	삼성운용	20090814	98	해외주식형
푸르덴셜네오밸류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A	푸르덴셜운용	20090819	68	주식형
KTB 2STOCK증권투자신탁 3[ELS-파생형]	KTB운용	20090812	44	기타

- 주1) 유형체계 :제로인 유형에 의한 분류
- 주2) 설정액 상위 펀드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 5. 변액보험

### 기업실적 개선으로 일반주식 3.43% 상승

#### 변액보험 국내 성과

기업실적 개선과 외국인 매수세로 코스피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변액보험 국내 성과도 양호한 성과를 보였다.

2009년 9월 1일 생명보험협회에서 공시한 기준가격을 기초로 펀드평가사 제로인이 2009년 8월 변액보험 펀드의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일반주식 펀드는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 상승폭보다 높은 3.43%의 양호한 수익률 기록했다.

하지만 자산운용사가 운영하는 일반주식펀드의 평균수익률(4.90%)과 비교하면 1.47%포인트 낮았다. 변액보험의 위험자산 편입비중이 일반주식펀드에 비해 낮아 코스피 상승에 따른 수혜를 작게 본 셈이다.

배당주식펀드가 3.99%로 주식형 펀드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았고, KOSPI200인덱스펀드는 2.09%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일반주식혼합펀드와 일반채권혼합펀드는 각각 1.83%, 1.06%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채권펀드는 채권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채권가격 하락)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중장기물에 비해 단기물의 금리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회사채와 금융채 금리는 중기물을 중심으로 소폭 하락해 국고채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세부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채권펀드는 0.02%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반면 국공채 투자비중이 높은 우량채권 펀드는 -0.18%를 기록했다.

#### 변액보험 국내 유형별 평균 수익률 및 순자산액

기준일 :2009년09월01일

(단위: 개,억원, %)

대유형	소유형	펀드수	순자산액	1개월	3개월	1년	연초후
주식형	일반주식	58	78,821	3.43	12.06	12.93	37.60
	배당주식	3	502	3.99	11.24	9.46	36.25
	K200인덱스	14	3,281	2.09	15.07	10.55	37.31
주식혼합형	일반주식혼합	113	154,626	1.83	7.28	11.61	21.32
채권혼합형	일반채권혼합	159	117,815	1.06	4.35	9.92	13.14
절대수익추구형	채권알파	10	1,128	0.25	1.23	7.54	4.51
KOSPI				2.22	14.04	7.98	41.56
KOSDAQ				2.05	-2.67	9.45	55.01
채권형	일반채권	106	24,145	0.02	0.03	7.32	1.85
	초단기채권	15	755	0.76	1.06	3.96	2.06
	우량채권	3	860	-0.18	-0.22		-0.99
MMF	MMF	7	1,292	0.11	1.91	4.98	3.01
KIS채권지수(1년 종합)				0.03	0.53	6.21	2.84

주1) 펀드수, 순자산액은 기준일 현재 평균수익률 계산시 대상으로 삼은 펀드들의 합계

주2) 유형별 수익률은 1개월 이상 운용된 펀드들의 단순평균 수익률을 일별로 계산한 후

기간누적해 산출함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일반주식펀드  
8월 3.43%

변액보험

8월 수익률

최고 10.47%

### 변액보험 해외 펀드 성과

**유럽신흥국 주식펀드**  
8.43%

글로벌 증시가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변액보험 해외주식형은 8월 한 달 동안 3.26% 상승했다.

이는 자산운용사가 운영하는 해외주식형 평균수익률(-2.27%)보다 높게 나타났다. 변액보험 해외주식형 평균수익률은 투자규모를 감안하지 않은 단순평균을 사용해 중국펀드의 영향을 덜 받았기 때문이다.

**남미신흥국 주식펀드**  
5.85%

중국과 아시아 신흥국 주식펀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모두에서 플러스(+)성과를 냈다. 미국, 유럽, 일본등 등 선진국에 투자하는 펀드의 상승세가 이어졌고, 유럽 및 남미를 중심으로한 신흥국 펀드도 우수한 성과를 냈다. 반면 중국 주식펀드의 수익률은 -3.49%로 부진했다.

**해외주식혼합**  
1.34%

남미 신흥국 주식펀드 역시 원자재 수요 회복세에 힘입어 같은 기간 5.85%의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러시아펀드 역시 5.59%의 수익을 냈다.

북미와 유럽주식펀드 수익률은 각각 4.65%, 6.70%를 기록했고, 일본 주식펀드 역시 1.64% 올랐다.

**해외채권혼합**  
0.97%

에너지섹터와 원자재섹터 펀드는 각각 5.62%, 2.88% 올랐고, 인프라, 기후변화, 농업관련산업 투자펀드들이 포함된 글로벌 멀티섹터펀드는 3.13% 상승했다.

해외주식혼합형과 해외채권혼합형은 각각 1.34%, 0.97%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해외 리츠 등 부동산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해외부동산형펀드는 3.69%의 수익을 냈다.

#### 변액보험 해외펀드 유형별 수익률 및 순자산액

기준일 :2009년09월01일

(단위: 개,억원, %)

대유형	소유형	펀드수	순자산액	1개월	3개월	1년	연초후
해외주식형		70	14,113	3.26	9.91	-8.28	30.61
	글로벌주식	13	2,029	4.90	10.99	-6.28	22.31
	신흥국주식	15	3,274	3.42	9.64	-9.13	39.51
	유럽주식	5	54	6.70	11.37	-12.72	16.20
	북미주식	2	20	4.65	12.76	-13.46	18.82
	아시아태평양주식	3	560	1.00	10.11	-8.85	27.49
	유럽신흥국주식	3	150	8.43	15.03	-19.32	44.16
	아시아신흥국주식	6	5,932	-0.13	9.55	6.81	35.96
	남미신흥국주식	3	195	5.85	12.79	-23.13	49.73
	동남아주식	1	11	4.02	11.04	-5.08	33.39
	일본주식	1	40	1.64	9.15	-28.61	11.72
	중국주식	6	1,198	-3.49	7.79	-5.95	30.86
	러시아주식	1	7	5.59	2.34		57.81
	에너지섹터	1	117	5.62	4.36	-10.10	30.42
	원자재섹터	6	225	2.88	4.46	-18.07	20.25
	글로벌멀티섹터	4	300	3.13	7.67	-21.92	16.79
해외주식혼합형		80	29,681	1.34	6.15	2.62	19.30
해외채권혼합형		36	10,575	0.97	3.98	4.27	11.67
해외채권형		4	55	1.96	4.66	9.19	7.15
해외부동산형		2	179	3.69	9.27	-2.84	10.44

주1) 펀드수, 순자산액은 기준일 현재 평균수익률 계산시 대상으로 삼은 펀드들의 합계

주2) 유형별 수익률은 1개월 이상 운용된 펀드들의 단순평균 수익률을 일별로 계산한 후 기간누적해 산출함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 변액보험 펀드 자금 동향

**변액보험 순자산액**  
**1조 879억원 증가한**  
**44조 6,637억원**

국내외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변액보험 운용규모도 1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평가사 제로인(www.FundDoctor.co.kr)의 유형분류 기준에 따라 변액보험 자금동향을 조사한 결과, 2009년 8월 중 변액보험 순자산액은 1조 879억원 증가한 44조 6,637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글로벌 증시 상승에 힘입어 모든 유형에서 순자산액이 증가세를 보였고 국내주식형은 전월대비 3,527억원이 증가했다. 이로 인해 변액보험 전체 규모에서 국내주식형이 차지하는 순자산액 비중은 지난 7월말 18.2%에서 18.5%로 0.3%포인트 늘었다.

운용규모가 가장 큰 주식혼합형은 역시 4,178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 채권혼합형과 채권형에서는 각각 93억원, 533억원이 증가했다.

해외주식형 펀드의 순자산액은 8월 중 306억원 증가해 변액보험 내 순자산액 비중은 3.2%를 유지했다. 해외주식혼합형과 해외채권혼합형 순자산액도 각각 715억원, 93억원 늘었다.

변액보험 전체에서 국내와 해외를 합한 주식형 순자산액 차지하는 비중이 21.7%로 나타났다.

[조성욱 제로인 펀드애널리스트 [www.funddoctor.co.kr](http://www.funddoctor.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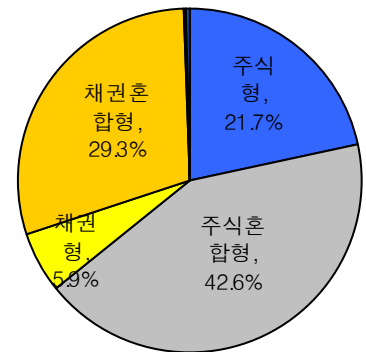
### 변액보험 유형별 자금 추이

기준일: 2009년 9월 1일 (단위:억원)

펀드 유형	펀드수	순자산액		
		7월말	8월말	증감
주식형	76	79,094	82,621	3,527
주식혼합형	119	156,340	160,519	4,178
채권혼합형	167	118,142	120,135	93
절대수익추구형	10	1,127	1,128	30
채권형	127	26,353	26,200	533
MMF	7	1,280	1,292	210
기타	8	83	140	3,527
<b>국내 소계</b>	<b>514</b>	<b>382,419</b>	<b>392,034</b>	<b>9,616</b>
해외주식형	70	13,807	14,113	306
해외주식혼합형	80	28,966	29,681	715
해외채권혼합형	36	10,338	10,575	93
해외채권형	4	56	55	30
해외부동산형	2	173	179	533
<b>해외 소계</b>	<b>192</b>	<b>53,340</b>	<b>54,603</b>	<b>1,263</b>
<b>전체</b>	<b>706</b>	<b>435,759</b>	<b>446,637</b>	<b>10,879</b>

주1) 제로인 유형분류 기준.

(단위: 억원, 개, %)  
변액보험 시장현황(순자산액 기준)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변액보험 국내 주식형 1개월 성과 상위 Top 10**

기준일: 2009년09월01일

(단위: 억원, %)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1개월	3개월	1년	연초후
메트라이프 VUL 성장주식형	9,339	일반주식	6.15	16.94	20.70	53.77
PCA VUL 주식형	1,779	일반주식	5.58	13.62	6.98	39.43
ING VUL 주식형	2,258	일반주식	5.44	14.26	4.55	38.50
PCA VUL 배당주	143	배당주식	5.42	13.60	11.76	39.74
동양 VUL&VA 르네상스주식형	71	일반주식	5.31	14.76	29.58	50.29
흥국 VA 변액연금III 블루포커스 주식형	58	일반주식	4.95	14.48	15.65	35.93
미래에셋 VUL 주식성장형	1,218	일반주식	4.82	14.23	20.61	42.04
AIG VUL(1형) 주식형	9,502	일반주식	4.50	13.08	14.77	43.01
뉴욕 VUL Pro-Active 주식형	145	일반주식	4.47	15.13	27.64	49.79
KB VUL 파워주식집중형	77	일반주식	4.18	18.29	16.25	42.63

**변액보험 국내 주식혼합형 1개월 성과 상위 Top 10**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1개월	3개월	1년	연초후
흥국 VUL 주식혼합형	199	일반주식혼합	4.40	9.55	13.66	30.22
동양 VUL&VA 베스트주식성장형	127	일반주식혼합	3.93	11.02	23.95	37.41
하나HSBC VA 주식성장형	50	일반주식혼합	3.53	9.57	14.50	30.28
흥국 VUL종신 성장혼합형	149	일반주식혼합	3.32	7.54	11.75	22.22
미래에셋 VUL 혼합성장형	87	일반주식혼합	3.07	9.16	16.27	28.28
미래에셋 VUL 주식혼합형	53	일반주식혼합	3.01	9.10	16.98	27.54
교보 VUL 파워인덱스형	1,101	일반주식혼합	2.94	11.60	11.30	27.95
동양 VUL 혼합성장형	1,497	일반주식혼합	2.89	10.04	10.82	28.15
동양 VUL&VA 주식성장형	2,758	일반주식혼합	2.86	9.64	13.97	30.48
동양 VUL&VA 매스티지주식혼합형	69	일반주식혼합	2.70	8.48	13.64	25.88

**변액보험 국내 채권혼합형 1개월 성과 상위 Top 10**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1개월	3개월	1년	연초후
미래에셋 퇴직연금 Stable주식안정형	59	일반채권혼합	3.11	5.97	10.93	16.28
미래에셋 퇴직연금 국내성장증권투자형(채권혼합)	120	일반채권혼합	3.03	5.56	10.70	15.10
라이나 VUL 혼합안정형	108	일반채권혼합	2.13	6.96	8.10	14.60
카디프 VA 구조화펀드3	146	일반채권혼합	2.00	6.02	6.43	16.15
카디프 거치형VA 구조화펀드	234	일반채권혼합	1.94	6.49	9.50	18.16
카디프 거치형VA 구조화펀드2	178	일반채권혼합	1.87	6.36	9.87	18.15
카디프 거치형VA 구조화펀드3	190	일반채권혼합	1.86	6.15	10.90	15.23
카디프 VA 구조화펀드4	133	일반채권혼합	1.73	5.54	5.33	13.47
KB VUL&VA 성장주혼합형	698	일반채권혼합	1.69	4.61	9.28	13.61
동양 VUL&VA 주식혼합1형	208	일반채권혼합	1.69	4.49	13.79	14.94

**변액보험 국내 채권형 1개월 성과 상위 Top 10**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1개월	3개월	1년	연초후
흥국 VA 채권형	69	일반채권	1.37	1.33	10.79	6.00
흥국 변액종신 채권형	92	일반채권	0.38	0.33	10.42	5.18
신한 VUL 채권형	70	일반채권	0.26	-0.02	7.77	1.40
흥국 VA 인덱스 채권형	71	일반채권	0.25	0.60	8.75	2.16
신한 VA 채권형	143	일반채권	0.24	0.13	10.23	3.01
동양 변액종신 채권형	130	일반채권	0.21	0.13	9.52	4.11
교보 퇴직연금 채권형	68	일반채권	0.16	0.32	8.49	2.87
동양 VA 채권형	128	일반채권	0.16	0.04	9.02	3.80
카디프 VA 안정형1	171	일반채권	0.14	-0.15	7.68	0.37
신한 VUL&VA Tops채권형	756	일반채권	0.12	-0.22	9.03	2.17

주1) 순자산액 50억원 이상, 1개월 수익률순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주2) 펀드명은 제로인이 변액상품을 구분해 부여한 것으로 변액연금은 VA(Variable Annuity),

변액유니버설은 VUL(Variable Universal Life)로 표시함



**변액보험 해외 주식형 1개월 상위 Top 10**

기준일: 2009년08월03일

(단위: 억원, %)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1개월	3개월	1년	연초후
카디프 VUL 파베스트동유럽재간접	73	유럽신흥국	10.47	10.90	-34.65	38.90
PCA VUL 글로벌베이지스주식형	640	글로벌	7.76	17.56	-10.21	33.78
PCA VUL&VA 해외성장형	334	글로벌	7.53	15.83	-5.69	20.71
신한 VUL&VA 봉쥬르중남미주식형	121	남미신흥국	6.38	14.10	-17.35	52.20
라이나 VUL 애그리비즈니스(AGRIC)	270	글로벌멀티섹터	5.98	11.99	-7.81	39.49
PCA VUL&VA 라이프사이클2035	360	글로벌	5.94	12.32	-2.75	22.51
카디프 VUL 파베스트라틴아메리카재간접	57	남미신흥국	5.69	11.56	-25.38	54.03
메트라이프 VUL 글로벌주식형	154	글로벌	5.68	12.25	-3.89	21.30
카디프 VUL&VA 유로메리카배당ETFs재간접형	101	글로벌	5.66	14.05	-22.74	13.24
뉴욕 VUL 천연자원펀드	117	에너지섹터	5.62	4.36	-10.10	30.42

**변액보험 해외 주식혼합형 1개월 상위 Top 10**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1개월	3개월	1년	연초후
흥국 VA 인베스트동유럽혼합형	76	유럽신흥국	3.83	5.45	-5.27	14.88
PCA VUL&VA 글로벌익스플로러	70	공격적자산배분	3.49	6.75	-2.90	10.63
PCA VUL&VA 라이프사이클2015	110	글로벌	3.22	7.87	0.69	17.33
푸르덴셜 VA 해외혼합형	173	글로벌	2.98	8.85	18.84	19.53
미래에셋 VUL종신&변액CI종신 주식안정성장자산배분형	581	글로벌	2.98	9.72	9.73	28.03
미래에셋 VUL 배당주안정성장자산배분형	180	글로벌	2.72	10.53	5.51	23.58
미래에셋 VUL 주식안정성장자산배분형	4,998	글로벌	2.61	9.35	10.14	27.43
미래에셋 VUL 인디아주식안정성장자산배분형	239	아시아신흥국	2.52	6.95	12.36	36.52
미래에셋 VA 주식혼합자산배분형	444	글로벌	2.51	7.33	15.32	22.33
대한 VUL 글로벌혼합형	124	글로벌	2.46	5.78	-8.16	10.44

**변액보험 해외 채권혼합형 1개월 상위 Top 10**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1개월	3개월	1년	연초후
ING VUL 해외혼합성장형	276	글로벌	2.32	5.64	7.40	12.18
삼성 VA 더블유인덱스30혼합형	338	글로벌	1.49	2.93	-0.83	2.78
미래에셋 VA 주식안정자산배분형	2,893	글로벌	1.42	4.72	7.82	14.89
미래에셋 VA 배당주안정자산배분형	861	글로벌	1.37	5.24	5.89	13.09
삼성 VUL&VA 글로벌혼합형	189	글로벌	1.12	2.96	0.56	8.03
미래에셋 VA 아시아태평양Q펀드자산배분형	87	아태(ex J)	0.97	4.60	6.60	13.39
미래에셋 퇴직연금 글로벌APFocus증권투자형(채권혼합)	67	글로벌	0.87	5.26	8.47	15.95
미래에셋 VA Korchindia포커스7주식안정자산배분형	770	신흥국	0.82	4.10	4.57	13.49
미래에셋 VA 아시아퍼시픽퀀수머주식안정자산배분형	897	아태(ex J)	0.72	5.53	7.40	13.89
신한 VA 글로벌이머징혼합안정형	347	신흥국	0.60	2.85	3.08	12.62

주1) 순자산액 50억원 이상, 1개월 수익률순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주2) 펀드명은 제로인이 변액상품을 구분해 부여한 것으로 변액연금은 VA(Variable Annuity),

변액유니버셜은 VUL(Variable Universal Life)로 표시함